

카뱅 전세사기 대출지원 도마에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 더 많아

청년 피해자 몰린 카카오�뱅크 지원책은 시중은행과 ‘판관’ 금리지원 없이 이자 연장 택해 만기일시상환시 총 비용 더 커

카카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지원 없이 연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HF의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 10%를 장기 분할,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지원을 더해 4% 초중반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장기 연

장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지만 상환하는 방식이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 연장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연장프로그램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여서 장기분할상환대출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월 9만6561원으로 120개월 동안 총 1158만7320원이 소요된다. 반면,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이지만 10년간 납부하고 원금을 갚으면 총 금융비용은 1300만원이 소요된다. 카카오뱅크의 HF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2.510%에 가산금리 0.777%~2.224%를 더해 최소 3.287%~4.734%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모든 가감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1.28% 정도로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약 0.28%의 가산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하 신용점수를 가진 피해자 대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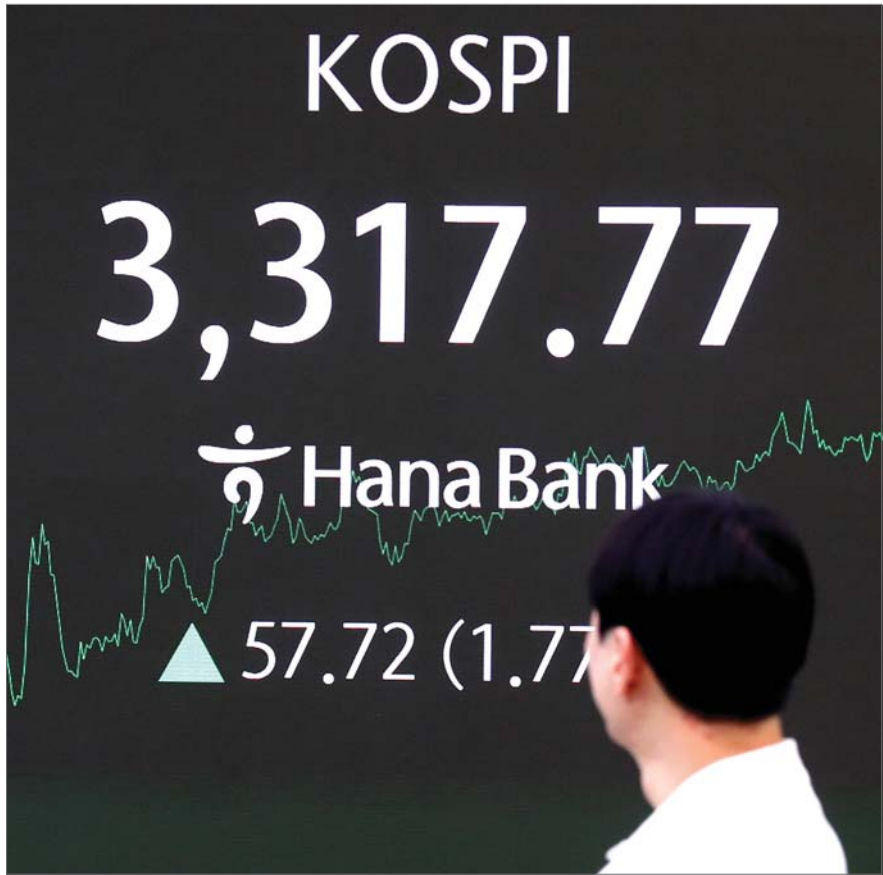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걸 고려해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지만 납부하게 해 총 소요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에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후 귀 기관이 보유한 잔여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지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점인 3317.77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만에 넘어선 것이다.

/손진영 기자 son@

코스피 장중 3317 뚫었다 李대통령 취임 100일 축포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 반영
글로벌 증시혼풍에 외인 매수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13면〉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67% 상승한 3314.5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전고점(3305.21)을 기록한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 중에는 3317.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점 3316.08(2021년 6월 25일)을 갱신했다.

사상 최고점 돌파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코스피 상승의 동력이 됐다. 다우지수는 0.4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7%, 나스닥지수는 0.37% 올라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외인 군단의 화력이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떠받쳤다. 외국인인 이날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3조원여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조7000억원 가량 ‘팔자’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으로 시선을 돌릴지를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 한 전문가들은 “예탁결제원에 쌓인 미국 주식 보관액은 1364억달러(8일 기준)가 넘는다. 원화로 200조원가량 되는 자금 일부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엄청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의 여윌돈이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시장 대신 국내 증시로 유입되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선 국내 기업 및 산업 체질 개선과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한 펀드매니저는 “국내 증시의 초과 수익이 상당 기간 증명되면 후행적으로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시가총액과 지수가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등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은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했다. 글로벌 IB의 투자 의견을 참고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JP모건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코스피 지수가 2년 내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재계 총수들, 관세폭풍 속 美서 해법 찾는다

이재용, 북미 신사육서 현안 점검
정의선, 美 산업 행사서 미래 구상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부터 글로벌 빅딜, 미래 먹거리 투자 등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전에 볼수 없던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사업 점검과 미래 전략 구상을 위한 경영 활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현지 주력 사업 점검을 위해 최근 북미 총괄법인(SEA) 신사육을 방문했다. 정현호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들도 동행했다.

최근 북미 총괄법인은 15년 만에 사육을 기존 뉴저지주 리지필드파크에서 인근 잉글우드클리프 지역으로 옮겼다. 1000여명에 달하는 총괄법인 직원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모두 새 사육으로 이동했다.

삼성전자 북미 총괄법인은 TV와 스마트폰 등 세트 제품의 미국 판매 및 마케팅을 맡고 있다. 또 삼성의 대미 로비 활동도 이곳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북미 총괄법인 신사육을 살펴본 뒤 북미 사업 현황을 일제히 점검했다. 최근 TV, 가전 등 주요 세트 제품이 관세 영향권에 들면서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의선 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 흐름과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현장 경영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건설 중인 미국 2차전지 합작 공장 직원 체포 후 임직원 미국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정 회장은 현장 경영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뉴스 월드 콘GRESS 기조연설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정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전환에 대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에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의 참석을 앞두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한동훈 “李대통령 대출금리 발언, 신용사회 기반 무너뜨리는 것”
▲이준석 “李대통령 대출금리 발언, 금융 근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사진 뉴스

▲정치 9단 김종인 “조국, 성비위 사건으로 상당한 타격”
▲조국혁신당 상임고문 은우근 탈당… “피해자 공격 멈춰라”

▲野송언석 연설에 與 “김건희” “통일교” 고성… 우 의장 “비판·고함 성찰해야”
▲조현, 민진출 한국기업 ‘비자’ 건의 수렴… “재입국 불이익 없도록 최선”

“시장 가장 잘 아는 기업 중점지원 ‘퍼스트 펭귄’ 처럼 세계 선도해야”

구윤철 부총리, 성장전략 회의

“정부, 기업과 소통 막힌부분 뚫고
확실 성과 날 때까지 지원할 것”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그래핀·K-식품 등 5개 우선논의

정부는 세계 1위 제품만이 시장을 지배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에 정책 지원의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불링에서 10개의 핀 중 정 중앙에 놓인 5번 핀을 가리킨다. 특정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존재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선두 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했다. 또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프런티어 정신(개척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바다에 앞장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 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확실한 성과가 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이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며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세계 1위 수주를 적극 뒷받침하고, 그래핀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K-식품에 대해선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9월 중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아이폰 17’ 소개하는 팀 쿡 CEO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아이폰 17 프로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17 시리즈와 아이폰 에어, 애플워치11과 애플워치 울트라3, 에어팟3 프로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한국은 1차 출시국으로 오는 12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뉴시스

가계대출 증가액 4.7조… 전월의 ‘2배’

금융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
계절적 요인, 주택가격 상승 영향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직후인 7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원까지 줄었는데, 계절적 요인과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늘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총액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기록했던 2조3000억원보다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월(4조2000억원)대비 대출 증가폭이 9000억원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이 3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제2금융권 대출 증가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전월(2조8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

은 2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정책성 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했고, 저축은행의 대출도 3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까지 가파르게 늘었다. 보험과 여신금융전문사는 전월과 비슷한 4000억원 감소와 2000억원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담대에 반영됐다”면서 “휴가철 자금 수요 등에 따라 신용대출 감소 폭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은 통상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는 시기지만, 전년 동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 가격 상승을 비롯한 가계부채 불안요인이 여전한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청년취업자 21만명 ↓… 16개월째 내리막

통계청, 8월 고용동향

15~29세 취업자 357.1만명
60대 이상은 40.1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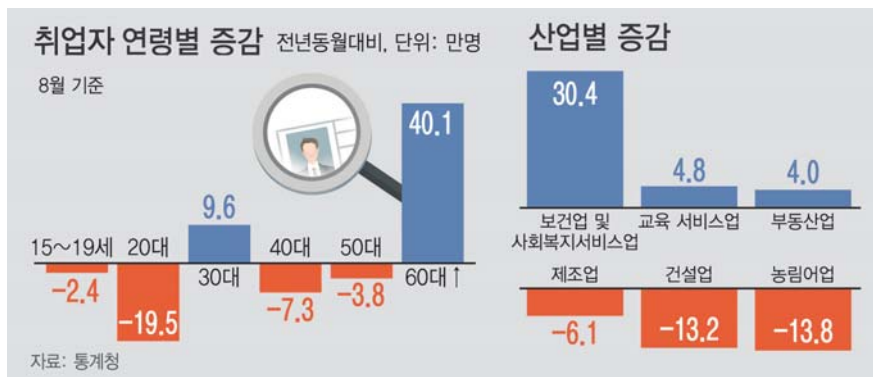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률 또한 16개월 연속 후퇴를 기록했다. 또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증가폭은 그러나 지난 5월 20만 선을 넘어선 뒤 3개월째 10만 명대로 둔화한 상태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5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 취업자 감소 폭을 훌쩍 넘는 수치다. 반면 60세 이상과 30대는 각각 40만1000명, 9만6000명 증가했다.

또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45.1%로 전년동월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경력직 선호 강화되고 수시 채용 폭



/뉴시스 그래픽

으로 가고 있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 비중 높은 산업군에서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계속 청년층 고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농림어업의 경우에도 7개월째 감소다. 지난 6월 14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내수부진 탓에 지난달 높은 감소세

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 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 감소도 지속돼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0.2%p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7만3000명(2.9%) 늘어났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32만8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에 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카뱅, 특례채무조정 받은 청년 81% 달해

>> 1면 ‘카뱅 전세사기 대출…’서 계속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분할상환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은행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건수 및 금액은 국민은행이 400건·30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95건·2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

례채무조정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들이 230건으로 전체의 57.5%였는데, 카카오뱅크 만34세 이하 청년이 319건에 달해 80.7%에 달했다. 타 은행은 ▲우리는 280건·210억원 ▲신한은행 199건·159억원 ▲하나은행 81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종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선결제 후정산’ 구조적 한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위기의 중개거래 플랫폼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영세 판매자 등 대규모 피해 현실로
“피해구제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필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한다. 1조 원대로 추산되는 미정산 피해액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영세 판매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됐다.

이번 파산은 ‘선결제 후정산’ 방식에 기반한 중개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성이 터져 나온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위메프 건물 전경.

/뉴시스

피해는 막대할 전망이다. 법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는 돈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폐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티몬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그친다. 위메프는 파산하면서 회생채권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

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

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오자 성명문을 내려 법원을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톨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개거래 플랫폼 문제는 티

몬·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3월 명품 플랫폼 발란 등에서도 유사한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 플랫폼인 매시패션과 에센스마저 파산하는 등,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경영난과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핵심에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선결제 후정산’ 방식이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쉬운 현금 유동성 확보 수단이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플랫폼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위험은 고스란히 영세 판매자에게 전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플랫폼의 갑을 관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결제대금 미정산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

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철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제조합 가입이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미정산 사태 발생 시 판매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플법과 같은 플랫폼 규제 법안은 미국의 통상 마찰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쇼핑, 배달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은 대부분 국내 기업에 독과점 사업자라 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 마찰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이 더디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이라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고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선책이라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유령 기지국 통해 해킹 의혹… 보안 우려 확산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지난달 27일부터 200건 이상 피해 파악
특정지역 통과시 수십만원 결제 제로도
KT, 피해 사실 입증시 전액 보상 방침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지역인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를 지나가기만 했는에도 휴대폰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용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커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통신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KT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T 가입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와중에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광명·금천 일대를 지나간 휴대폰에서 수십만원이 결제됐다’는 글이 게시돼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작성자는 해킹된 날 뉴스에 나오는 광명·금천구 지역을 차로 지나간 적 있는 친구의 휴대폰에서 새벽에 71만원이 소액결제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이미 각종 경로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일 서울 한 KT대리점에 KT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아직까지 그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경찰 조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유령 기지국을 통한 소액결제는 해커가 만든 가상 기지국에 KT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접속되면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 정보가 해킹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KT는 자체 조사 중 광명 지역 피해자들의 통화 이력에서 KT가 관리하지 않는 미상의 기지국 ID를 발견했다.

회사 측은 지난 8일 오후 3시경 광명 일대 피해 고객의 통화 이력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정황을 확인해 같은 날 오후 7시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KT는 “점점 결과, 현재 통신망에 접속된 불법 기지국은 없다”며 “관리 절차 강화를 통해 비정상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소액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하지 않는 이상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KT 관계자는 “올 9월 사건 발생 이후로는 비정상적으로 탐지되는 건은 차단해냈고, 이미 결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결제 건은 고객에게 전화가 간다. 전담 센터도 운영 중이며 관련 해 공지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소액결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회사 측의 조치에도 KT 이용 고객들이 험사리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까닭은, 소액결제를 차단해둔 상황에서 한도가 임의로 상향 조정돼 수십만원의 결제가 진행됐다는 피해자 제보가 나오고 있어서다.

KT는 피해 고객이 경찰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차관은 “정부는 지난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배후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 노동자 350여명을 수송하기 위한 대한항공 보잉747-8i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해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기 페리 운행… “미측과 귀국일정 협의”

美, 한국인 구금사태

대한항공 B747-8i 대형기 투입
美 사정에 의해 당초 일정 연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외교부는 10일 “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측과 협의를 위해 지난 8일 워싱턴DC로 향했고 루비오 대사를 만나 10일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석방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이륙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세기에 승객 368명이 탑승할 수 있는 B747-8i 대형기를 투입 승무원 탑승 외 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페리 운행을 준비했다.

통상 전세기는 10일 오전(현지시간)에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게 되며 구금된 우리국민을 태우면 대략 이날 오후 2시께 전세기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귀국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미 조지아주 포크스틴 이민세관 단속국(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틴 구금 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엮새째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금자 귀환을 위해 9일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귀환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막판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춘 기자 ch9720@

美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대응 전략 점검

>> 1면 ‘재계 총수를 관세…’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대한 현지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

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정이 HL-GA 공장 사태와 맞물리면서 정 회장의 발언 수위와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수출시 현재 25% 관세를 내고 있고 일본은

15%를 적용해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15% 관세 합의가 실행되기까지 현지 시장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대차는 현지 생산과 재고 관리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관세 정책은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다”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 폴란드 합작·영국시장 진출… 유럽 방산 공략 본격화

폴란드서 현지 생산·정비 등 강화
영국 DSEI서 K9·천무·MCS 전시
NATO 총측 MCS, 연합군 운용 확대
수출 넘어 현지 고용·산업 협력 강화

국내 방산업계 ‘만형’ 한화그룹이 유럽 무대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 폴란드에서 천무 현지생산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영국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DSEI)까지 연속으로 진출하면서 유럽 방산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이달 초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 WB그룹과 천무(호마르-K)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지분 구조는 한화가 51%, WB그룹이 49%를 보유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작법인은 폴란드 수출형 천무 유도탄에 탑재되는 사거리 80km급 탄종



영국 런던에서 오는 12일 진행되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 DSEI에 참가한 한화 전시관에 K9 자주포, 천무 유도탄, 모돌화 장약(MCS) 등 유럽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한화

(CGR-080)을 우선 생산하며, 생산물량은 폴란드군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탄종 다변화와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 산하 조선소와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 협약을 맺었다. 한화시스템은 레이더·전

자전 솔루션을 전시하며 전장 네트워크 기술력을 알렸다.

단순 전시를 넘어 실질 계약까지 이끌어낸 점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란 평가다.

한화그룹은 폴란드에 만족하지 않고 서유럽 영국까지 확장에 나섰다.

지난 9일 개막한 영국 런던 DSEI 2025에서 한화 방산 3사(에어로스페이스·시스템·오션)는 통합 부스를 꾸렸다. 이번 전시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모돌화 추진 장약(MCS) 등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선보인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NATO 회원국 6개국에서 운용 중인 K9은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입증된 체계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이번 전시에서 단순 홍보가 아니라 현지 생산·정비 파트너십까지 병행해 유럽 내 장기적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상황에서 천무는 유럽의 화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MCS 역시 사거리 확장과 화력 효율화는 물론 NATO 표준에 부합하는 장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연합군 운용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활용이 가

능하다.

한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및 정비를 포함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공급망 강화, 고용 창출,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폴란드에서 계약을 따내고, 영국에서 존재감을 키운 연속 행보는 한화가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전선 선봉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유럽 무대를 계기로 현지 정비(MRO)·기술 협력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 현지와의 장기적 동맹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폴란드 계약은 시작일 뿐, 영국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구도”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 “유럽의 방산 고객들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자국 산업 기반과 전력 유지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며 “한화는 검증된 무기 체계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유럽 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대명소노, 티웨이 인수 후 리브랜딩… ‘트리니티 항공’ 출범

리조트·골프·항공 결합 여행상품 추진
티웨이 상반기 적자, LCC 업황 악화 우려
안전투자·증자로 산적 과제 해소 나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명을 ‘트리니티 항공’으로 바꾼다. 항공·숙박·여행을 결합한 글로벌 관광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면 리브랜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내부에 리브랜딩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BI)·기체 도색·서비스 정체성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구체적 결과물은 아직 공유되지 않았지만 관광 전반을 아우르는 토틸 플랫폼 항공사로 도약



항공기 리버리 이미지. /티웨이항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리니티(TRINITY)’는 라틴어 Trinitas에서 유래했으며 ‘셋이 하나로 완전함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항공·

숙박·여행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번 사명 변경은 서 회장이 지난 2월 약 2500억 원을 들여 티웨이홀딩스 지분 전량(46.26%)을 인수하며 본격화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티웨이항공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바 있다. 14년 만에 인수에 성공하며 임직원 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항공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준비를 마쳤다.

실제 지난 7월 대명소노는 티웨이항공과 함께 제주행 항공편과 소노캄 제주·소노벨 제주 숙박, 조식 뷔페, 사우나 무료 입장 등을 묶은 ‘항공+호텔’ 결합 상품을 선보였다. 업계는 “OTA(온라인 여행사)

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유통망을 활용하면 마진율 개선과 고객 충성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티웨이항공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26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239억 원 흑자와 대비되는 수치다. 장거리 노선 확대·일본 노선 수요 둔화·LCC 공급 경쟁 심화와 운임 하락 등으로 업황이 침체된 영향이다. 소노 관계자는 “인수 후 자본잠식 상태임을 확인하고 최근 자본을 확충했으며, 연말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흑자 전환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모회사 소노인터내셔널의 기업공개(IPO) 예비심사 청구도 연기됐다. 부채비율 612%인 소노인터내셔널

은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했었다. 회사 측은 “상장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업계는 티웨이 실적 개선 속도와 대외 환경이 IPO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회장은 LCC 업황 침체, 티웨이항공 적자, IPO 지연 등 과제를 ▲항공 안전 및 정비 투자 확대 ▲유상증자 등으로 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다.

소노 관계자는 “해외 호텔과 골프장과 티웨이항공 노선을 결합하면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회원 수십만 명을 연계해 혜택을 늘린다면 충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1000개 기업 뭉쳤다… ‘제조 AX’로 2030년 100조 부가가치

산업부, 내년 AI예산 1조1347억 투입
올해 대비 두 배 확대… 대규모 지원
김정관 “제조 AX 1등 국가 도약”

국내 제조업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손잡고 ‘제조 AX(Manufacturing AX, M.AX)’ 시대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1000여개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제조강국 코리아의 체질을 AI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조 데이터가 기업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AI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도 더뎠다. 일부 기업은 해외 AI 기업과 협업을 모색해왔다. 정부와 산업계는 업종별 대표 제조사와 AI 기업, 소재·부품사가 함께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M.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업종별 대기업과 AI 전문기업, 소재·부품사,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 공유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현대차·LG전자·포스코

등 대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협력해 2030년까지 500개 AI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하고, 업종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해 산업단지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또 AI 제조서비스는 설계·디자인·공급망까지 AI를 확산해 제조업 AI 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산업융합 표준 54종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AI 예산을 올해(5651억 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GPU·데이터센터·실증공간 같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와 표준 마련을 위한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벤처업계 “주 52시간제, 업무특성 반영 못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간담회 개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필요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현행 주 52시간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로젝트 중심의 현장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토로하면서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현재 주 52시간제는 업계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

&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선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이란 중소기업 전문직 근무자 가운데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 노사 합의나 근로자 동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을 전제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우리 동네 사장님을 향한 가장 든든한 응원

지역 경제의 주인공,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은 1:1 무료 컨설팅과
NH소상공인 상생 아카데미로
소상공인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된 산업에 활력을… 국민성장펀드 규모 150兆로 확대”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토론회

李 대통령 “지원방식 대대적 개편
벤처·혁신기업 육성… 생태계 활성화
모험·혁신투자 환경 조성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펀드 규모 확대, 벤처·혁신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계, 창업·벤처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 등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해서 능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라며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문이 나는 거다.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엔 전 세계적으로 통상·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가 가진 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하가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

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 주고 이자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순수한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전략,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등과 관련한 토론회가 실시됐다.

자유토론은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KTV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송언석 “反기업 악법으로 경제 죽어가 국민의힘, 후속 보완입법 착수할 것”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부작용 지적
상속세·법인세 낮춰 세금부담 덜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사진)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 등 부작용을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온갖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펜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 왜곡이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과 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더 센 상법’이라고 부르며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

진하겠다고 한다. 가뜰이나 기업 방어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우리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네번째), 전혜숙 전 의원(왼쪽 다섯번째), 조국제 유한양행 사장(왼쪽 여섯번째),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서도 필수의료 서비스 누리도록 하겠다”

제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새정부 보건의로 비전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로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갖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로 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 헬스 강국 실현 등의 새정부 보건의로 비전을 제시했다.

강연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과 회피가능 사망률 등은 OECD 평균보다 우수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지난해 28.3%로 OECD 평균(10.7%)의 두배가 넘는다. 또한 의료자원이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며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에 직면

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내 공공의료 강화 기반 지역연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민·의료계가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료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사 전향과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방에서도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사는 곳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인 전혜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을 비롯,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조국제 유한양행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세경 기자 seilee@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리디아고
Lydia KO

LPGA 통산 23승

이민지
Minjee LEE

LPGA 통산 11승

마다솜
Dasom MA

Defending Champion

이예원
Yewon LEE

노승희
Seunghui RO

황유민
Youmin HWANG

박연경
Hyunkyung PARK



공항철도를 타고
청라국제도시역(하나금융타운)으로
오시면 갤러리 티켓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5. 9. 18(목) ~ 9. 21(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관 |



방송 |



기획/운영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신한라이프, 상반기 장사 잘했다 순이익 3453억 ‘우수 구간’ 근접

보험손익 줄고 투자손익 반등
OCI 변동성·충당금 확대 부담
K-ICS 199.6% 방어력 회복세
하반기 자본·신용 관리 관건

신한라이프가 올 상반기 345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우수 구간’에 근접한 실적을 냈다. 그렇지만 기타포괄손익(OCI·장부평가 손익) 변동성, 보험서비스비용의 확대, 신용손실충당금(미래부실 대비금)의 증가와 같은 요소는 하반기 점검 과제로 남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올 상반기 실적 핵심은 ‘보험손익 둔화’와 ‘투자손익 회복’ 흐름이다. 보험손익은 3755억원으로 전년 동기(4061억원) 대비 감소했다. 2분기 단일 분기 기준으로 1865억원으로 전년 동기(2058억원)보다 낮다.

투자손익은 909억원으로 전년(418억원) 대비 크게 개선됐다. 금리·배당·평가 이슈의 기저효과와 운용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상반기 전체 이익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순이익 3453억원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수익(CSM 등 인식)은 안정적이었지만 보험서비스비용(1조699억원)이 전년 대비 1269억원 증가해 본업 수익성을 압박했다. 그사이 재보험 수익(670억원)이 늘고 재보험 서비스비용(736억원)도 확대되는 등 비용·효익이 동시에 반영됐다.

투자부문은 회복했지만 변동성은 남아 있다. 상반기 기준(별도) 파생상품 관련 이익은 3458억원, 손실은 1195억원으로 순이익 약 226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신한라이프가 지난 상반기에 34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 서울 을지로 사옥.

/신한라이프

동기 순손실 3340억원에서 반등했다. 반면 외환은 이익 782억원, 손실 3803억원으로 순손실 약 302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순이익 3554억원 대비 방향성이 바뀌었다. 금리와 환율, 헤지 포지션에 따른 민감도가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파생 전략의 일관성 유지와 외화 노출(익스포지) 관리가 실적 변동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자본·건전성은 ‘방어력 회복’과 ‘변동성 내재’로 요약된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199.6%(경과조치 미적용)로 지난 3월 말 대비 10.32%포인트(p) 개선돼 방어력을 회복했다.

다만 상반기 기타포괄손익(OCI)은 연결 -6038억원, 별도 -5917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쌓였지만 현금흐름헤지(변동 방지 거래) 평가는 마이너스였고 보험부채 관련 순금융손익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반영돼 자본총계 변동성을 키웠다.

자본총계는 6조3978억원으로 이익잉여금 축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수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 하반기에는 ▲ALM(자산·부채 관리) 정합성 ▲헤지 포지션 ▲조달 타이밍(후순위·배당)의 조율이 중요한 전망이다.

신용 지표 부분에서는 가중부실자산비율(NPA)이 0.18%로 전 분기·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절대 수준으로는 낮은 편을 기록했다. 해외부동산 수익증권 재분류와 가계대출 연체 증가를 변동 요인으로 꼽았다.

상반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1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587억원 대비 약 595억원 늘었다. 환입(616억 원)을 감안한 순전입도 약 566억원으로 전년 197억원보다 확대됐다. 신용손실충당금 증가로 하반기에는 대체투자 및 가계·기업대출 익스포저에 대한 보수적 모니터링과 충당금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신한라이프의 상반기 실적은 투자손익 회복에 힘입어 우상향했고 방어 지표도 무난했다. 하지만 보험서비스비용 증가로 본업의 수익성 탄력은 제한적이었고 OCI 중심의 자본 변동성, NPA의 미세 상승은 하반기 체크포인트다. 실적은 좋아졌고 체력은 견조하나, 자본·비용·신용의 3축을 긴 호흡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다.

신한라이프는 공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금융상품 투자손익의 증가 등으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과 반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며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증권의 자산건전성 재분류와 가계대출 연체 증가에 따른 추정손실 증가로 가중부실자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수협, 1인당 영업익 1300% ↓

조합 89곳 중 흑자 유지 13곳 불과
총 44곳은 1인당 영업익 적자 기록

올 상반기 공시를 낸 지역 수협 조합 중 절반가량이 직원 1인당 생산성에서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의 경우 1인당 영업이익 생산성이 반년 만에 1300% 이상 적자를 내면서, 역대급 경영 효율성 악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조합 영업이익을 직원 수로 나눈 값이다. 대표적인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효율성 지표로 간주된다.

10일 메트로경제가 상반기 공시 자료를 낸 89개 수협 조합의 경영지표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말 대비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곳은 총 44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줄였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적자는 면했어도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줄어든 조합까지 합치면, 모두 76곳에 달한다. 공시를 낸 조합 89개 중 흑자를 유지하면서 1인당 영업이익을 늘린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적자 조합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단순히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문고수협조합의 경우 지난해 말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약 1396만원이었

다. 그러나 반년 만에 약 2억원 가량 줄어들면서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마이너스(-)1억786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1379% 감소한 수치다.

제주어류양식수협 역시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반년 만에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말 약 3억 3649만원이었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8810만원으로, 반년 만에 약 2억 5000만원 감소했다.

통조림가공수협조합 역시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3000만원대 흑자에서 1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약 1억 3561만원 정도 줄어들면서 426%의 감소율을 보인 것이다.

반년 만에 개별 조합 직원 생산성이 억원 단위로 급감한 가운데, 수협의 순이익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수협은 올해 2분기 순손실 139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냈다. 1586억원의 순손실을 낸 전년 동기에 비하면 적자 폭은 2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적자 기조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들의 결손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 영업이익이 줄어서 생산성이 줄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스테이블코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美 지니어스법 통과로 논의 급물살
전통 금융권도 전략 반영 불가피
일본은 신중, UAE는 적극 ‘온도차’

해외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름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권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의 연결이 불가피해져서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귀금속 등 가치가 일정한 자산에 가격이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발행 초기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제약이 많은 기존 화폐를 대체해 사용됐고, 최근에는 일본·미국·EU 등 주요국의 제도화 움직임에 힘입어 그 영역을 전통 금융까지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 하원은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및 발행 요건을 규율하는 ‘지

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지니어스법은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98%가 미국 달러에 연동된 만큼, 지니어스법의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름수 없는 아젠다로 부상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컨퍼런스(UDC)’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제도권 금융과 블록체인의 만남’이란 분석을 내놔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폴 벤시스 팩소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성장 총괄은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이후, 전통적인 금융 시장 및 서비스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대대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법안 통과 이전에는 많은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주저했지만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한 본질상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고, 수용할 것인지 고려할 수밖에 없

다”라면서 “블록체인에는 국경이 없고, 이미 시작된 논의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슈퍼컨홀에서 개최된 ‘BTCON2025’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화두가 던져졌다. 이날 두 번째로 진행된 패널 토론의 주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제정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으로 설정됐다.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니키 아리아싱헤 체인링크 랩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규제기관들도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일본과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금융 허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규제기관들도 여럿 있지만, 이들조차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현대자동차그룹 연계 로봇믹스 라이프’.

/현대건설

현대건설, 압구정2 ‘로봇 친화단지’ 제시

단지설계부터 동선·시스템 최적화
‘셔클’ 기반 무인셔틀로 이동성 높여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친화형 아파트’를 제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로봇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은 단지 설계부터 로봇 운송을 통해 동선과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엘리베이터와 자동문, 통신망까지 로봇과 연동되도록 설계해 로봇이 단지 내 구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로봇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로봇 스스로 중간 이동과 문 개폐가 가능하다. 단지 밖 도로에서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 엘리베이터를 거쳐 세대 현관문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로봇믹

스랩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량을 총결집해 입주민의 이동과 편의, 안전, 전기차 충전 및 주차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플랫폼이 적용된 로봇이 단지 전역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단지 내부에는 현대차·기아의 ‘셔클’이 적용된 무인 셔틀이 운영된다. 셔클은 현대차그룹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실시간 승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운행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단지 내 이동 효율을 높이고 교통 약자에게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

현대건설관계자는 “압구정2구역은 이동과 편의, 안전, 전기차 충전 및 주차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이 적용된 최초의 도시”라며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된 미래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원 기자 jiw13@

美 ESS 설치 4배 성장 전망… K-배터리·부품사 동반 수혜

2030년 145GWh… 연평균 28% ↑
재생에너지 ITC 축소 ESS는 수혜
LG엔솔·삼성SDI, AMPC 지원 확대
ESS 포트폴리오 전환 기업 부각
EV 대비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아

미국에서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북미 ESS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MPC(첨단제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배터리·셀 업체와 전기차(EV) 중심에서 ESS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ESS 설치량은 지난해 33기가와트시(GWh)에서 오는 2030년 145GWh로 연평균 28% 성장할 전망이다. ESS는 남은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함으로써 전력 수급을 조절하고 전력망 안정과 송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기준 중국이 92%를 점유하고 한국은 8%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의 법·제도 변



미국 ESS 설치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북미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화가 국면을 바꿀 전망이다. 지난 6월 통과된 OBBB(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은 축소됐지만 ESS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북미 유틸리티 기업들은 여전히 ITC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 셀·모듈 등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AMPC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수취를 위해 탈중국 조항이 적용되면서 북미 유틸리티 기업 입장에서 공급망 재편이 요구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중국산 배터리셀에 대한 고율 관세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중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분기부터 미국 현지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경쟁사 대비 1.5년 이상 빠른 속도로 현재 약 70GWh의 ESS 배터리 수주잔고를 확보했으며 올해 말 17GWh·내년 말 30GWh를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AMPC 규모는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는 스틸란티스 합작법인 내

유휴 라인 2개를 ESS 전용으로 전환해 올해 4분기 삼원계(NCA) ESS 6GWh·내년 하반기 리튬인산철(LFP) ESS 6GWh를 양산할 계획이다. 내년 ESS 용 AMPC 규모는 약 3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셀 기업뿐 아니라 HD현대일렉트릭과 같은 부품·시스템업체들도 수혜가 기대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1400억 원 규모의 ESS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ESS 시장은 EV 시장 대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향후 수요 확대가 꾸준히 예상된다. 글로벌 EV 배터리 연간 수요가 650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SS는 1200GWh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넷제로보다 에너지 안보에 집중하며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지원이 축소되는 추세”라면서도 “재생에너지 간헐성으로 백업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ESS가 있으면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한화

ABS와 공동연구 착수

미국 선박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파워시스템 등 한화그룹 3사가 미국 선급협회(ABS)와 손잡고 미국 선박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에 돌입한다.

한화 3사와 ABS는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스 에너지 전시회 ‘가스텍(Gastech) 2025’에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사이버보안 규정과 미국 기국(US Flag) 선박 요건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기국 선박은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선박으로

미국 기국 선박은 미국에 등록돼 미국 국적 깃발을 단 선박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와 관계없이 국제 해양법상 미국의 법과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는 미국 상선·해양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해양 사이버보안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이번 공동연구는 미국 사이버 규제 분석, 선종별 통합 보안 체계 구축, 선박 맞춤형 보안 솔루션 개발, 국제표준(IACS UR E26) 기반 기술 확장, 실시간 위협 대응·복원력 기술 고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SK하이닉스

AI 솔루션 최적화 추진

데이터센터 성능검증 확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일 네이버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업해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AI 솔루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제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와의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품을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와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車업계, 노사 협력 훈풍…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성과급 확대, 보상 강화
기아, 정년·주4일제 등 강경안 고수
한국GM, 철수설 겹쳐 교섭 난항

국내 완성차 업계 만행인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기아와 한국GM 교섭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10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글로벌 자동차 어워드 기념 500만원+주식 30주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현금만 15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통상임금도 일부 확대한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기아 노조는 현대차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내놓았지만 현대차의 합의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노사는 현재 임단협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은 현대차와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약 3조8000억 원)를 전 종업원 성과급으로 지급 ▲통상임금 특별위로금 2000만원 ▲정년 64세 연장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등 강도가 더 높다.

주4일제 요구와 성과급 규모 등이 현대차 보다 높다. 업계는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점을 고려해 노조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본급 인상 수준은 현대차와 비슷하게 책정된 만큼 빠르게 극적 타결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GM은 노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은 단순히 임금 인상, 성과급 뿐만 아니라 최근 불

거진 철수설에 대한 갈등까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GM 노조는 ‘공급망 정의위원회 구성’을 단체협약 요구로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터와 공급망 전체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회사가 지난 5월 발표한 부평공장 부지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 센터 매각 방침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격려금·성과급 상향 ▲국내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1600만원 규모의 일시금·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으로 톱3 정조준

IAA 2025서 글로벌 톱3 도약 선언
전동화·통합제어·UX 3대 혁신축 공개

현대모비스가 독일 뮌헨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IAA 모빌리티 2025’를 통해 글로벌 3위 부품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부품사 6위(오토모티브뉴스 기준)에 올라 있다.

현대모비스는 ‘모비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전동화·통합제어·사용자경험(UX)을 3대 혁신 축을 발표했다. 영업부장 악셀 마슈카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 모비스가 거둔 성과와 함께 모비스의 미래 기술이 글로벌 수주를 통해 현실화될 사례, 준비

중인 미래 기술 전략을 소개했다.

현대모비스는 ▲ 향상된 친환경 전동화 ▲ 최적화된 기능 통합 ▲ 차량 각вит 내 사용자 경험 극대화를 선제적 연구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의 세 가지 방향점으로 삼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 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냉각·소화약제 자동분사 시스템 등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개발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셀 발화시 소화약제를 자동분사해 화재를 즉시 진압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핵심 기반 기술로 꼽히는 전자식 조향(SBW), 제동(BBW), 후륜 조향(RWS) 등 차세대 새시 기술을 하나의 제어기로 통합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미래 모빌리티 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전장기술 융합을 통해 디스플레이 없이 차량 유리를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HWD)도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IAA에 처음 참가해 전동화 기술 종합 플랫폼인 ‘EV 스케이트보드’를 공개했다. 이는 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수주 성과로 이어져, 지난해 연산 36만대 양산 가능한 스페인 공장을 착공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영업부문장 악셀 마슈카 부사장이 9일(현지시간) ‘IAA 모빌리티 2025’ 전시장에서 전동화, 전장 핵심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공략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에 집중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사업체질 개선과 연구개발 고도화를 추진해 오는 2033년까지 핵심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R&D 비용 등 손해기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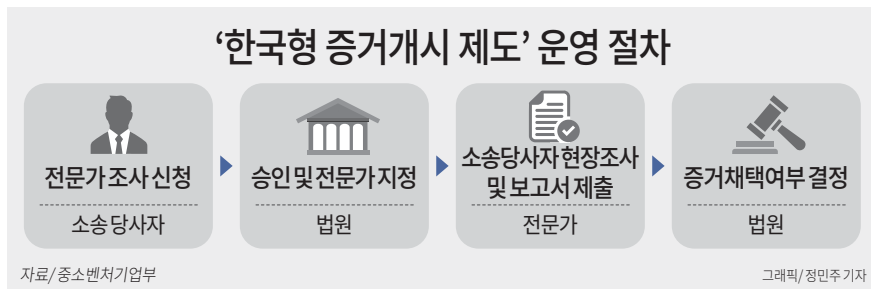
행정조사 등 피해입증 지원 강화
기획·인지 수사, 집중 단속 실시
2030년까지 기술임치 2배 확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법원이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를 겪은 중소기업들은 기술분쟁 과정을 한마디로 ‘속도는 느리고 무게는 무겁다’고 표현했다. 이는 소송 단계에서 피해입증의 어려움, 7년에 걸친 소송에 따른 경영애로 등을 함축적으로



로 표현한 말씀”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의 호소는 간절했다”며 대책 마련 과정을 전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선 기술침해를 당한 기업이 소송과정에서 ‘정보불균형’에 따른 불리함이 없도록 피해입증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또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막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로도 도입한다.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

까지 확대한다.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입증 및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제보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중기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등 입증 및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조치 단계에선 현재 시정권고에 불응한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기술 개발 투입비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기업의 R&D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

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손해액 산정기준도 고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해 손해액 산정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수집 데이터는 기술침해 피해기업,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법원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해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만7000여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늘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관련 신문고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D현대중공업

세계 최초 암모니아선 오염수 처리장치 개발

HD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추진선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처리장치와 독성 위험구역 설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미국 선급(ABS)으로부터 기본인증(AIP)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자체 개발한 ‘암모니아 폐수 선외 배출 장치’는 폐수 탱크에 모인 암모니아 폐수의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제어하는 모니터링 장치다. 폐수 내 암모니아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허용 기준 이내에서만 암모니아 폐수의 선외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선내 암모니아 누출 위험 구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독성 위험구역 설정 시스템도 개발했다. 암모니아 추진 설비 및 병커링 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누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중·저위험 구역을 정의해 구역별 필요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차세대 연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혜택 줄고 규제 발목… K-배터리, 북미공략 ‘적신호’

〈세액공제〉

〈취업비자〉

숙련인력 확보 최우선 과제 부상
“단기 실적문화 피하기 어려워”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와 비자 규제 강화라는 이중 악재로 인해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북미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전기차 수요 위축 속에 보조금마저 폐지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숙련 인력 파견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기 지연, 부대 비용 증가 등으로 대형 프로젝트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HI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진 이후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확충 중인 배터리 업체는 ‘정식 취업 비자를 가진 숙련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ESTA, B1·2 등 단기 비자를 활용해 인력을 파견했으나

앞으로는 정식 취업 비자가 사실상 필수화되면서 실제 투입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당국의 전향적 조치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력 수급 불안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배터리 공장 가동 일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사 지연은 금융비와 고정비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납품 차질로 고객사 신뢰를 흔들며 기업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HIL-GA 공장을 비롯해 애리조나 쿨크릭, 미시간 랜싱, 오하이오 파에트카운티 등 4곳에서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SDI도 2개 공장을 짓고 있고, SK온 역시 현대차·포드 등과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배터리 업체들은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공정 지연 가능성 자체가 곧바로 리스크로 이

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와 15조 원 규모의 원통형 46리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가동 예정인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이를 소화할 계획이다. 또 테슬라와는 6조 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SK온 역시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와 협력해 대형 ESS를 공급하기로 했다. 모두 ‘미국 생산’을 전제로 한 계약인 만큼, 숙련 인력 투입 지연이 현실화하면 생산 라인 정상화와 납품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오는 30일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되는 점도 배터리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혜택이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 둔화는 불가피해 배터리 수요 감소로 직

결된다.

주민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달 1일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전기차(EV)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 관리를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실적 문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수요가 꺾임(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는 동안은 ESS가 돌파구가 되고, 이후에도 미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외교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기업들도 임원과 전문가를 꾸준히 파견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전문 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투자는 큰 차질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이 10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메인비즈협회

中企 M&A 활성화 ‘맞손’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잠재수요 발굴 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와 메인비즈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메인비즈협회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M&A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수요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M&A 중개를 지원하며, 필요시 인수자금에 대한 보증을 연계하는 등 M&A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승계와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화세미텍 “내년 하이브리드본더 출시”

반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 로드맵 발표

한화세미텍이 내년 초 하이브리드본더를 출시하며 차세대 첨단 패키징 장비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한화세미텍은 오는 1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타이완 2025’에서 하이브리드본더 청사진을 담은 차세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TC본더 ‘SF5M 익스퍼트’ ▲2025년 CoW 멀티칩본더 ‘SF5M TnR’ 출시에 이어 ▲플렉스리스본더 ‘SF5M 익스퍼트+’ ▲하이브리본더 ‘SHB2 Nano’를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본더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성능과 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HS효성첨단소재, 미래 탄소섬유 솔루션 제시

‘탄섬’ 기반 원사 라인업 소개

HS효성첨단소재가 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전시회 ‘CAMX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HS효성첨단소재는 ‘탄섬’ 기반 신규 원사 라인업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항공우주 및 고사양 산업용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3K 원사, 차세대 고압용



CAMX 2025 HS효성첨단소재 부스 전경.

기용 초고강도 원사 등 미래 탄소섬유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원관희 기자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삼육대학교

미션, 비전, 열정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삼육대학교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인성교육에 AI·SW 첨단학문을 더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변화의 힘을 키워갑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원서접수일 : 2025. 9. 8.(월) 10:00 ~ 2025. 9. 12.(금) 18:00
입학처문의 : 02-3399-3377~9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sy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국가대표 AI 기업 사명감으로 최고 수준 모델 개발하겠다”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

“SOTA급 AI 모델 달성은 기술자립 위해 반드시 필요
올해 내 구현하는 것이 목표”

SK텔레콤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영상 CEO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르메르디앙서울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AI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겠다”고 말했다며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 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상 CEO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최고 수준의 AI를 만드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SOTA(해당 분야에서 현재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수준)급 AI 모델 달성은 기술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표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1차 단계 평가부터 오픈소스 SOTA급에 근접한 모델을 올해 안에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 말로 잠정 예정된 1차 단계 평가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 평가가 이뤄진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에서 유영상 SK텔레콤 CEO에게 ‘K-AI’ 엠블럼이 새겨진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SKT

SK텔레콤 팀은 단계 평가가 계속될 수록 단순 벤치마크 성능뿐만 아니라 실 사용자 관점의 체감 성능이 중요해진다며 AI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접근성 향상, 실질적 활용성이 주요해될 것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부터 한국형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경험과 1000만 고객이 활용하는 AI 에이전트 ‘에이닷’을 상용화하며 수많은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성이 뛰어난 모델을 만든다는 각오를 전했다.

SK텔레콤은 AI 컨소시엄에 참여한 크래프톤·포티투닷(42dot)·리벨리온·라이너·셀렉트스타와 함께 AI 모델 설계부터 반도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최적화, 멀티모달까지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풀스택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휘할 계획이다.

서울대 연구실(김건희 교수, 윤성로 교수, 황승원 교수, 도재영 교수)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연구진(이기민 교수), 미 위스콘신 메디슨대 연구진(이강욱 교수, 디미트리스 파파일리오풀로스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이 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핵심 목표는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면서도 다국어 지원과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차세대 AI 모델 개발이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 구현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유영상 CEO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모델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AI 생태계 전체의 혁신적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오픈AI “韓, AI 혁신 최적지”

오픈AI코리아 출범 기자간담회
산·학·관 협력으로 AI 전환 혁신



오픈AI는 이달 11일 서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픈AI 포컨트리즈’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픈AI가 10일 한국지사인 오픈AI코리아를 공식 출범했다. 전 세계 12번째 지사이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번째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사진)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파이크팩토리에서 열린 오픈AI코리아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혁신적인 기업, 빠른 디지털 도입 속도를 갖춘 AI 혁신의 최적지”라며 “산업, 학계, 정부와 함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지난 2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이후 챗GPT와 카카오 생태계와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 전자, 통신, 금융, 여행, 게임,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오픈AI ‘GPT-5’ 등 최첨단 AI 기술을 도입했다.

오픈AI는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보탠다. 오는 12일 ‘파운더스 데이’를 열어 스타트업, 개발자, 벤처캐피탈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올 11월에는 개발자와 스타트업, AI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데브데이 엑스체인지’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오픈AI가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챗GPT’는 최근 주간 활성 사용자 수 7억명을 돌파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챗GPT 주간 사용자가 1년 전보다 약 4배 급증했고, 유료 구독자 규모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다. /김현정 기자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민 차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CJ PAY 우리통장’ 개설하고 티빙 이용권·포인트 받으세요”

내달 31일까지 프로모션 진행

CJ ONE과 우리은행은 ‘CJ PAY’ 통장 신규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CJ PAY 우리통장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이자 혜택과 포인트 적립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선불충전금 200만원까지 최대 3% 이자 지급(기본금리 0.1%, 우대금리 최고 2.9%포인트) ▲CJ PAY 충전금으로 결제 시 최대 적립 2% ▲이체 및 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양사는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CJ PAY 우리통장을 개설하는 고객 모두에게 티빙 3개월 무료 이용권과 CJ ONE 2000포인트를 지급한다. 단, 티빙 3개월 무료 이용권은 선착순 1만명에게만 지급한다.

또한 고객이 CJ PAY 우리통장을 지인에게 추천을 하고 지인이 통장을 개설하면 추천한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증정하는 지인 추천 이벤트도 운영한다. 지인 추천은 추천 고객당 티빙 이용권 1개월씩, 최대 6개월 이용권을 받아볼 수 있

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 첫 거래 고객이라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000원권을 모두에게 추가로 증정한다.

CJ PAY 우리통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지난 6월 정식 출시됐다. CJ ONE 앱에서만 ‘CJ PAY 우리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가입 시 선불충전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보관되고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예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도 지급한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J ONE 앱 내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0

KT엠모바일, 아이폰 17 자급제 대상 37만원 혜택

오는 30일까지 프로모션 진행

국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은 아이폰17 공식 출시를 맞아 자급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7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9월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주며, 아이폰17 자급제 고객은 17만원의 특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이폰17 고객 대상 혜택은 오는 18일까지 다이렉트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출

시 알림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출시 알림 신청 후 30일까지 1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신규 가입하고 10월 내 휴대폰을 등록하면, 신규 가입 혜택과 합쳐 최대 37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렉트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KT SAT, 정밀농업 솔루션 개발 박차

미래농업 리딩기업 대동과 ‘맞손’

KT SAT(셋)은 미래농업 리딩 기업 대동과 위성 영상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위성 영상 데이터 활용 정밀농업 솔루션 개발 ▲솔루션 사업화·마케팅 ▲공동 신규사업 기회 발굴 등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농업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밀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밀농업은 위성·센서 등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결합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한다.

KT 셋은 멀티밴드 센서를 기반으로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적색경계 등 여러 파장대의 빛을 관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위성 영상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해 식물 생육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생육 정도, 병해충 발생,



서용수 KT SAT 대표(왼쪽)와 대동 권기재 그룹경영실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SAT

영양 상태 등을 진단하는 다양한 식생지수 산출이 가능하다.

대동은 KT 셋 위성 데이터와 기존 드론 기반 고해상도 데이터를 융합해 토양·생육 분석, 시비 처방맵 산출, 관제 플랫폼 등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농기계, AI 로봇, 데이터 센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정밀농업 분야의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증시 사상 최고치… 경제 체질개선 땀 ‘코스피 5000’ 뚫는다

코스피 전망 ‘장밋빛’

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 ‘유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갈아치워

“배당소득세 25% 하향 조정땀
韓 증시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이쯤 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 갈아 타는 게 지능순 아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11일)을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자, 개미들이 모인 A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환호성이 터졌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대로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까. 이재명 정부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의 정책효과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증시를 ‘부스트업’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은 주식시장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인공지능(A)과 빅테크 경제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장밋빛 전망의 배경이다.

기대감과 시장 친화 정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체질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증시 ‘부스트업’의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코스피 5000 도달에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자사주 소각 등 이재명표 정책 자본 시장 새 서막

이날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국내외서 들러온 호재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을 증시로 불러 모았다. 뉴욕증시가 미국 고용지표와 관련한 우려에도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점도 호재였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조건이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 50억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적

극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보편화되는 추세”라면서 “한국 정부도 이런 추세에 발맞춘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최대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것까지 논의된다면 본격적인 글로벌 대비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를 ‘부스트업’할 재료는 또 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월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와세는 자본 총계를 낮출 유인이 있어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다면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 장기 동력은 ‘경제 체질 개선’

문제는 불안한 경제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성장률이 0.7%로 잠정 집계됐다. 역성장은 탈출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평균 0.9%에서 1.0%로 상향했다. 한국 경제를 가장 비판적으로 봤던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0.5%에서 6월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0.7%로 또 높였다. 씨티은행도 4월 0.6%에서 지난달 0.9%로 올렸다. 골드만삭스 역시 5월 1.1%에서 8월 1.2%로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하지만, 장기화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내수 부진을 심화하고,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나마 내년 한국경제에 햇살이 비출 것이라ں 소식이 위안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제외한 41개 기관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예상과 같은 1.8%였다. 한은의 전망치

(1.6%)보다 2%포인트 높았다.

예상과 현실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혁신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 걸림돌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감각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 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지속해서 투자할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증시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시켜 안정적인 외국인 매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과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질적인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도 있어야 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두나무, 블록체인 ‘기와’ 앞세워 글로벌 선점

오경석 대표 “스테이블코인 확산
블록체인 인프라 대중에 퍼질 것
두나무, 미래 금융 인프라 만들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한국적 상징을 담은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미래 금융 인프라를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확장시키겠다는 ‘K-기업’의 포부다.

지난 9일 두나무는 ‘업비트 D 컨퍼런스(UDC)’를 통해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GIWA Chain)’과 ‘기와월렛(GIWA wallet)’을 공개했다. 기와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3(Web3)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레이어2는 이더리움의 보안성은 상속받으면서도,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저렴하게 동작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두나무는 기와체인을 통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퍼지게 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인, 월렛과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대중에 퍼질 것이고 이를 통해 지급결제, 자산관리, 자본시장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웹3 기반의 서비스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시대가 됐고, 두나무는 그 신뢰의 레이어 위에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와’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미국, 싱가포르 등 ‘한국 밖 세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개발했다. 두나무는 “기와가 겹겹이 모여 단단히 지붕을 이루고, 수백년간 우리 선조를 안전하게 지켜왔듯, 블록체인상 겹겹이 쌓이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더 많은 국내 개발자들이

기와체인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창조하며 웹3 생태계에 진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꾸준한 한국적 상징을 강조해 왔다. 앞서 진행된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2에서도 핵심 주제로 국화(國華)인 무궁화를 선정하고, 환경재단과 함께 무궁화 보전지를 조성했다. 나아가 ‘무궁화’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였다. 올해는 비인기 스포츠 자변 확대를 위해 태권도 ‘폼새’ 국가대표 후원에 나서면서 ‘토종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보유한 금융·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시대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업(業)이 미래 세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운용, 월배당 ETF 투자법 교육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정직한 TIGER ETF’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월배당 ETF 투자법을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월배당 ETF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운용사로서, 투자자들과 함께 월배당 ETF의 올바른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국내 월배당 ETF 시장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산 배당과 콕잡힌 매도 프리미엄을 동시에 활용해 높은 분배율을 제공하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가 주목받고 있다.

‘정직한 TIGER ETF’ 콘텐츠는 TIGER ETF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TIGER ETF 홈페이지 내 ‘ETF 인사이트’ 코너에서 ‘월분배 투자의 정석’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 ‘ETF 분배금의 이해’, ‘해외 사례로 알아보는 커버드콜 ETF 분배율’ 등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TIGER가 제시하는 적정 분배율’이 새롭게 업로드 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엔비디아·AMD 담은 ‘SOXL’ 압도적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주간 순매수액 3억3525만 달러
테슬라·TSLL 순매수 2위·3위

서학개미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종목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AI 거품론 이후 조정국면에 들어간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특히 고위험·고수익 종목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테슬라가 개별종목과 ETF 형태로 인기를 끌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주(9월 2일~9월 8일까지) 서학개미들은 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약 3억3525만달러(약 4648억2400만원) 순매수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SOXL은 ICE반도체지수 일일 변동률을 3배로 추종하는 고위험·고수익 상장지수펀드(ETF)로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다.

또한 AI 인프라주인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약 4800만달러)에도 매수세가 몰리며 AI 중심의 구조적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AI 거품 발언 이후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와중에 반등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모양새다.

액티브 전기 케이블(AEC)과 광디지탈 신호 프로세서(DSP)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크레도는 최근 AI 핵심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일 글로벌 투자은행



ChatGPT가 생성한 ‘서학개미가 AI 반도체 ETF와 테슬라에 집중하는 모습’.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크레도가 2026 회계연도 1분기(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며 크레도를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와 함께 AI 수혜 상위 4대 종목 중 하나로 선정했다. 소식 당일 크레도의 주가는 장중 12% 넘게 치솟았으며 상승세를 이어가 8일 사상 최고가(149.08달러)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테슬라와 테슬라의 일일 주가 변동률을 2배로 따라가는 TSL(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ETF)이 나란히 순매수 2위·3위를 차지했다. 지난 5일 테슬라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 CEO에게 현재 1조 1000억달러 수준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035년까지 8조 500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면 최대 1조달러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을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이 테슬라의 장기 성장 자신감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됨에 따라 매수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건우 기자 geon@

한남, 탄소중립·에너지효율 협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키르기스스탄서 K-난방 본격화

비슈케크시청·에너지부 협력 구축
도시·국가 이중 협력 틀 동시 마련
친환경 열공급망 현대화 지원 약속
중앙아 K-난방 교두보 확보 전망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키르기스스탄을 교두보로 'K-난방'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한다.

10일 한남에 따르면, 한남은 몽골, 카자흐스탄에 이어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세 번째 방문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비슈케크시청 및 에너지부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슈케크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노후 열공급망 문제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효율·친환경 K-난방 도입 전략 수립 및 실행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운영·유지관리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가 한남 본사를 방문해 K-난방 적용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대사는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지역 난방 현대화 사업과 같은 협력 모델을 키르기스스탄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한 바 있다.

아이벡 비슈케크 시장은 "비슈케크시 시민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축적된 지역난방 경험은 우리도시의 열공급 인프라 현대화와 환경오염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정용기 한남 사장(왼쪽 두번째)과 아이벡 비슈케크 시장 등이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말했다.

이어 체결된 에너지부와와의 협약은 국가 차원의 협력 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에너지 효율화 로드맵 수립 △바이오매스·태양열·소각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열공급 모델 개발 △스마트 통합 운영 및 IoT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스베코프 에너지부 차관은 "이번 협력은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 개선,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기 한남 사장은 "비슈케크시청과 에너지부와의 협력은 도시와 국가 차원의 이중적 협력 구조를 동시에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의 K-난방

모델을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이 직면한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과 대기 환경 개선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남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K-난방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한남의 선진 기술과 스마트 통합운영, IoT 기반 열공급 관리시스템 등을 적극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남 관계자는 "한남의 북방 비즈니스 전략이 단순 기술 협력에서 벗어나 제도적·정책적 파트너십 단계로 격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MOU가 K-난방 네트워크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K-난방 모델을 이식시키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기술직 중심 하반기 대규모 채용

홈페이지서 16일~23일 접수

한국전력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62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일반공채 421명, 고졸공채 70명, 배전전기원 50명, 연구·전문직 등 기타 79명이다. 오는 16일부터 일반공채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채용인원의 약 80%는 △현장안전 강화 △전력망 건설 등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기술직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공채 사무직은 학력·전공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기술직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와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는 서류·필기전형에서 우대된다. 한전은 채용과 동시에 전력망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도 병행한다.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와 안전 패트롤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일반공채 지원서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한전 채용 홈페이지(recruit.kepc.co.kr)에서 접수하며,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1월 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총수일가 주식 보상 확산… '세습 지원' 논란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공개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와 임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그룹은 총수 2세와 직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계약을 맺어 '세습 경영'의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1개 집단 중 13개 집단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353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유형은 약정 체결 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 유형이 가장 많은 188건이었다. 이는 총수 2세에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이외 ▲스톡그랜트(Stock Grant)

51건 ▲PSU(Performance Stock Unit) 107건 등이다.

총수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주식지급 약정은 총 16건으로, 6개 집단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화과 유진 그룹은 지난해 총수 2세와 RSU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RSU는 글로벌 기업에서 전문경영인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국내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에게 집중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다르고 사실상 승계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에 머물렀지만, 계열사 지분율 상승으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총수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크래프트(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식량안보 강화 해법 찾기

전문가·산업계 정책 제언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10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열린 이 포럼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비롯해,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목적이다. 행사에서는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측으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 및 공급 안정화 방안(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권재복 팬오션(주)한국사무소 소장)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장도환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다. 또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산업·학계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쿠팡 하도급 의혹, 동의를결 착수

공정위, 제재 대신 동의를결 착수
PB상품 계약서에 판촉비 분담 규정
수급업체 대상 30억 규모 상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제재 대신 동의를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쿠팡은 PB(Private Brand)상품 계약서에 판촉비 분담을 명시하고, 30억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쿠팡과 씨피엘비(이하 쿠팡)가 신청한 하도급 동의를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과 판매사업을 승계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PB 상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제공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쿠팡은 지난 3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를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를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

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시정방안 집행에 집중하는 제도다.

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기명 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 명시 △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 명시(쿠팡 최소 50% 부담)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를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를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매립지의 변신’… 아마추어 골프 격전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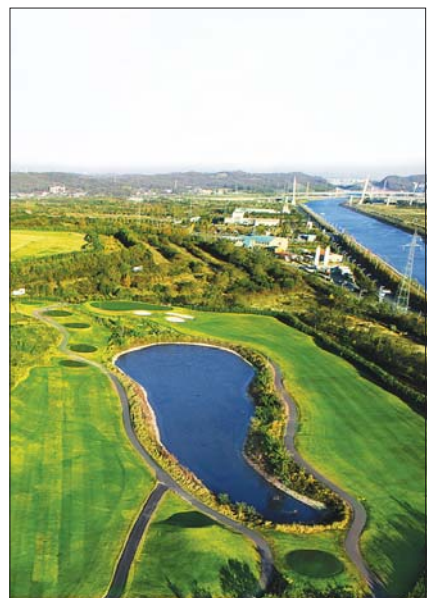
제6회 드림파크배 대회 개최

종전의 폐기물 매립지에서 골프장으로 거듭난 부지에서 지난 9일 전국 골프 아마추어선수권의 막이 올랐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저변 확대까지 동시에 꾀하고 있다.

공사는 오는 12일까지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에서 '제6회 드림파크배 전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은 폐기물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부지를 사후관리 기반으로 조성한 골프장이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골프경기와 US여자오픈 예선 등 국제 경기를 개최한 36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다. 종료 매립지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국내 골프 저변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익금 전액은 매립지 사후관리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으로 활용된다. 수익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매립지 운영에도 기여하고



인천 서구 소재 드림파크 컨트리클럽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한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발된 KGA 랭킹 상위 아마추어 선수 176명(남자부 88명, 여자부 88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기존 3라운드에서 4라운드로 확대 운영되며, 대한골프협회 공식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METABUILD



경북도, APEC 준비 만전... “최고 수준 객실·서비스 제공”

정상 전용객실 등 설비 새단장
‘찾아가는 호텔 종사자 교육’ 실시
식음 분야에 전문인력 배치

경북도와 경주시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상 전용 객실(Presidential Suite·PRS)을 비롯한 숙박시설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APEC준비지원단(단장 김상철)은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필수적인 숙박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호텔업협회 주관 ‘찾아가는 호텔 종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경주 지역 APEC 공식 숙소를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이해 ▲국제 의전 서비스 ▲일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주제로 실시돼 호텔 종사자의 국제회의 이해도와 의전 역량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식 숙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호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교육 기간에는 전문가들이 AP EC 숙소를 암행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해 개선을 유도, 수도권 특급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인·미디어 배정 숙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과 집합 교육을 5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경제인, 언론인 등

약 2만 명이 참석하며, 일 최대 7,700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35개의 PRS 객실을 마련해 정상급 인사들을 위한 충분한 객실을 확보했다. 현재 리모델링 공정률은 약 90%에 달하며, 이달 안에 한국적 멋과 아늑함을 담은 세계적 수준의 숙소로 재단장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숙소의 서비스 품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APEC준비지원단과

숙박시설 관계자들이 협력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준비지원단은 한국컨시어지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호텔별 전문 컨시어지와 프론트데스크, 식음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로비에 APEC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외국인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고 수준의 객실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완벽히 준비하겠다”며 “경주는 이미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벽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북항 재개발 협력의 장 마련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대형 건설사와 직접 만나는 ‘상생데이’가 11~12일 열린다. 시는 1대1 상담을 통해 북항 재개발 협력의 장을 지원한다.

해운대 웨스틴조선부산과 북항 1·2단계 재개발 현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시공 능력 상위 건설대기업 19개사, ‘역량강화(Scale Up)’ 사업에 참여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40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 오후 2시 웨스틴조선부산에서는 건설대기업과 부산건설업체 간 1대1 상담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시와 지에스(GS)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대기업 9개사가 북항 1·2단계 재개발 현장 등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난 8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백신포럼’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세계 백신허브’ 청사진 그린다

국제백신산업포럼

‘미래 감염병 대응 전략·기술’ 주제
국내외 기업·연구기관 협력 확대

경북도는 8일부터 9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전략과 혁신기술’을 주제로 ‘2025 국제백신산업포럼’을 열고 세계적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 씨모피서 사이언티픽 등 국내외 바

이오·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석해 글로벌 백신산업의 전망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열린 논의를 이어갔다.

포럼은 전염병 대응 혁신 연합(CEPI) 소속 뉴턴 와호메 박사의 ‘팬데믹 대비 엔진: 질병 X 대응을 위한 통합 AI/ML 플랫폼’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백신 개발 동향과 정책, 혁신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이틀간 집중 논의했다.

경북도는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학계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 교류를 강화해 세계 백신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울진군, ‘대한민국 파크골프 성지’ 발돋움

대규모 인프라 확충... 전국대회 유치

울진군이 파크골프 인프라 구축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울진군이 ‘대한민국 파크골프 성지’를 향한 청사진을 본격 가동 중이다.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전국 규모 대회 연속 개최, 여기에 치유와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시설까지 아우르며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현재 울진군은 기성면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완공한 데 이어, 평해읍

에 중대형급 36홀 골프장을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복면 흥부생 활체육공원에도 9홀을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온정면에 36홀 클럽하우스형 골프장을 도비 확보를 통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체류형 스포츠 관광 기반을 확대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스포츠·관광·건강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사천공항 활성화 정책 성과

섬에어, 12월 사천~김포 시범운항

섬에어가 오는 12월부터 사천~김포 노선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이는 사천공항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소형항공사 운항 확대 사업의 핵심 과제다.

섬에어는 ATR 72-600 신조기를 활용해 시범 운항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항공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획득과 동시에 사천~김포·제주 노선에 정식 취항할 예정이다.

시범 운항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정식 취항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항공사의 안전 운항 능력과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운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 운항 환경에서 안전성과 정시성, 운영체제를 종합 평가하는 절차다.

울릉공항 개항 시에는 사천~울릉 노선까지 운항을 확대해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 경남도·진주시·사천시·한국공항공사와 섬에어 간 체결된 사천공항 신규 취항 협약의 구체적 결실이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와 관련된 지자체는 재정·행정적 뒷받침과 공항 홍보를 담당하고, 섬에어는 단계별 노선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섬에어 신규 취항은 도민 항공 이동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천공항의 기능 재편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라며 “경남도는 국토부와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천공항이 국가 전략 거점이자 우주항공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23일 ‘스마트 제조 포럼’ 개최

애플 제조업 R&D 센터와 양일간 진행

포항시와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POSCO 국제관과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 ‘스마트 제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제조업 혁신 동향과 대기업의 스마트 제조 전략을 공유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제조업 및 빅테크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스마트 제조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세계적인 로보틱스 권위자인 데니스 흥 미국 UCLA 교수가 첫날 기초

강연을 통해 스마트 제조와 로보틱스 융합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의 페데리코 토르티 선임 전문가가 글로벌 제조업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애플 관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전문가들도 연사로 참여해 ▲스마트 제조 최신 기술 동향 ▲AI·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사이버 보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둘째 날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고민하거나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스마트 제조 포럼은 애플과 포항시의 긴밀한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라며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춘해보건대-울산시관광협회

울산 ‘라이즈’ 사업 협력 본격화

춘해보건대학교와 울산시관광협회가 울산을 문화·관광 힐링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9일 울산시관광협회 대회 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현장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지역 사회는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창원시

외국인 지방세 일제정리 추진

창원시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실행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영천시

국민체육센터 회원 700명 돌파

영천시가 국민체육센터 개관 한 달 만에 회원 700명을 모집하며 시설 운영에 청신호를 켰다.

지난달 1일 개관한 영천국민체육센터는 3일 기준 등록 회원이 총 706명에 달했다. 종목별로는 수영 378명, 헬스 278명, 요가 50명이며, 특히 수영과 요가 프로그램이 빠르게 자리 잡으며 지역 생활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개관 초기 부족한 점은 신속히 보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저속노화 바람… MZ세대, 운동·식단 등 ‘셀프 케어’ 확산

20~30대 56% 건기식 꾸준히 섭취
10명중 4명은 수면·활동량 기록

대상웰라이프·오리온 등 기업들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출범시켜

풀무원, 식물성 브랜드 ‘지구식단’
CJ제일제당, 웰니스 햇반 선포

MZ세대의 건강 관리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일상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셀프 케어(Self-care)’를 중심으로 체중·자세 관리, 균형 잡힌 식단까지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단백질과 수분뿐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까지 골고루 챙기는 ‘저속노화(슬로 에이징)’ 식단과 맞춤형 운동을 병행하는 흐름이 확산하면서, 식품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맞춤형 영양제·건강기능식품 섭취는 기본이 됐다. 오픈서베이의 ‘건강 관리 트렌드 리포트 2025’에 따르면 20~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약 56%)은 건강기능



‘저속노화’ 식단과 맞춤형 운동을 병행하는 흐름이 확산하면서, 식품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식품·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으며, 홈트레이닝·필라테스·PT 등 소규모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수면·활동량을 기록하는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인식도 달라졌다. MZ세대의 건강 관련 구매 기준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보다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감)’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

다. 특히 원료 투명성(43%), 친환경·비건 등 가치 소비(38%)가 제품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단순히 유명 브랜드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관리와 윤리적 요소가 소비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국내 식품업계는 ‘셀프 건강관리(Self-care)’ 트렌드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대기업들은 맞춤형 영양제·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대상그룹은 각각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출범하거나 기능성 브랜드를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2022년 제약·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CJ바이오사이언스’를 공식 출범시키며 바이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2021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천랩을 인수하며 맞춤형 헬스케어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1월에는 건강사업부문을 분리해 ‘CJ웰케어’를 설립, 건기식부터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전문 기업으로 도약했다.

대상그룹 역시 건기식과 균형 영양식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뉴케어’를 중심으로 시장 영향력을 넓혀온 데 이어 2017년에는 자회사 ‘대상라이프사이언스’를 출범해 헬스케어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저속노화(슬로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제 곡물과 단산당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가 제안한 ‘MIND 식단’ 역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흰쌀·밀가루, 가공 떡·빵·면류, 설탕·탄산음료 등 고열량 식품은 최소화하고, 귀리·현미 같은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복합 탄수화물을 활용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건강 이슈 확대는 곧바로 식품업계의 제품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 칼로리·지방을 줄이되 맛은 유지하는 ‘로우스펙(Low Spec)’ 제품군이 잇따라 출시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풀무원의 식물성 지향 브랜드 ‘풀무

원지구식단’은 대표적으로 ‘제로면’과 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두유면’은 85kcal 저칼로리 제품이면서도 고식이섬유·고칼슘 성분을 갖춰 인기를 끌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웃돌자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섰으며, 두부면·곤약면까지 제로면군을 확대해 주력 제품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즉석밥 시장에서 잡곡·콩·퀴노아 등을 활용한 웰니스 햇반 신제품을 선보였다. ‘서리태 흑미밥’, ‘렌틸콩퀴노아 곤약밥’, ‘병아리콩퀴노아 곤약밥’ 등으로, 간편성과 영양을 동시에 잡아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웰니스 제품군을 확대해 시장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소비자들은 건강을 ‘특별한 관리’가 아니라 일상식 속에서 챙기는 습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식품기업이 기능성·웰니스 요소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결합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기다림 침향 추석 한정판 인센스 포함 ‘평정 에디션’

정관장, 메누하와 컬레버
행사기간 중복할인 가능

식약처에서 인정한 ‘아퀼라리아 말라센시스’ 원료를 사용한 정관장 침향 전문 브랜드 ‘기다림 침향’이 ‘기다림 평정 에디션’을 이번 추석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정관장은 프리미엄 홈프래그런스 브랜드 ‘메누하(MENVHA)’와의 컬레버를 통해 기존 침향 고객 뿐만 아니라 웰니스·명상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향(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품을 기획했다.

새로 출시된 ‘기다림 평정 에디션’은 정관장 기다림 침향액과 ‘메누하’의 프리미엄 인센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에디션 구성에는 정관장 기다림 침향액 20병과 함께, 모닝·나이트 컬렉션 인센스 스틱 40개, 고급스러운 블랙 트레이와 ‘기다림’이 각인된 황동 홀더가 포함된다. 특히, 4가지 향(주니퍼,

샌달우드, 말차, 매화)의 인센스 스틱은 바쁜 일상 속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이번 ‘기다림 평정 에디션’은 15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인센스 세트가 포함된 제품을 ‘기다림 침향’ 컬레버 한정 혜택가로 제공하며, 추석 행사 기간에는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제품은 전국 정관장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정관장의 ‘기다림 침향’은 마음 건강 전문 브랜드로, 오리지널 침향에 정관장의 기술력이 더해져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정관장 관계자는 “기다림 침향과 유사한 프리미엄 인센스 브랜드 ‘메누하’와의 컬레버를 통해 침향과 함께하는 일상 속 마음 챙김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성을 통해 침향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건강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육수커플’ 영상 1억뷰 돌파

배우 변요한·차주영 부부로 출연

CJ제일제당의 편의형 코인육수 제품인 ‘백설 육수’에는 1분링’의 마케팅 콘텐츠가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백설 육수’에는 1분링’을 소재로 한 ‘육수커플’ 영상이 업로드한 지 3개월만에 다수 SNS 채널에서 함께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공개된 영상은 1분 분량의 결혼생활 에피소드 5편으로 제작됐으며, 배우 변요한과 차주영이 부부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결혼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제품과 함께 유쾌하게 풀어낸 영상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며, 광고를 시작한 6월에 전월 대비 매출이 약 50% 상승하는 등 매출 증가까지 이어졌다.

/신원선 기자



의왕ICD 2터미널에서 열린 볼보트럭코리아 서비스 캠프에서 관계자들이 안전운전 및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졸음번쩍검’ 안전운전 홍보

볼보트럭코리아와 맞손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전개

롯데웰푸드가 볼보트럭코리아와 손잡고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롯데웰푸드는 운전자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졸음번쩍검’을 통해 장기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예방을 돕고, 안전운전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볼보트럭 서비스캠프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를 선도해 온 볼보트럭코리아와 협

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8일부터 19일까지(주말 제외) 전국 주요 사이트 9개소에서 진행되는 볼보트럭 서비스캠프와 동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행사 현장을 방문하는 트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졸음번쩍검을 제공하고, 졸음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오프라인 활동 뿐만 아니라 볼보트럭코리아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공동 캠페인도 검토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GS25, 케데헌 협업

K-푸드 간편식 선보여

GS25가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대문 헌터스’와 협업한 K-푸드 간편식 시리즈를 이달 17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케이팝 대문 헌터스’는 올해 6월 공개 후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영화 1위에 오른 작품으로, 이달 3일 기준 누적 시청 2억 6600만 회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주요 상품은 ‘참치마요&전주비빔반반김밥’, ‘모듬 분식세트’ 등 간편식과 ‘아이스브릴레골든망고’ 등 아이스크림이다. 모든 상품에는 영화 관련 썸 스티커 42종 중 1개가 무작위로 동봉된다.

GS25는 향후 젤리, 교통카드 등으로 협업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종욱 기자

뚜레쥬르, T멤버십 고객

최대 50% 할인 혜택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SKT T멤버십 고객 감사제 프로모션에 참여해 최대 50%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뚜레쥬르의 SKT T멤버십 감사제 프로모션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T멤버십 앱 내 고객 감사제 페이지에서 매직 바코드를 선택하고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만 원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1회 사용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은 뚜레쥬르의 다양한 케이크, 선물류, 양과류 등 전 품목에 적용된다. 특히 뚜레쥬르의 베스트 제품인 생초코 초코 케이크, 소금버터롤, 한 장씩 뜯어먹는 32겹 브레드, 기본종은 쌀 베이글, 리얼 브라우니 등은 물론, 건강 빵 라인업 ‘SLOW TLJ’, 그리고 최근 출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농심 컬레버 신제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17일까지 ‘히트상품 위크’

보먹돼·당당 두마리옛날통닭 할인

홈플러스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홈 히트상품 위크’를 열고 ‘보먹돼’, ‘당당 두마리옛날통닭’ 등 주요 단독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캐나다산 ‘보먹돼 삼겹살과 목심’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50% 할인하고, ‘당당 두마리옛날통

닭’은 4000원 할인한 9990원에 내놓는다. 노르웨이 생연어 역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다.

자체 브랜드(PB) ‘심플러스’ 상품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심플러스 1A우유’와 식용유, ‘이춘삼 짜장라면’ 등 라면 3종을 비롯해 음료, 캠핑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사인머스켓, 계란 등 신선식품과 주방용품, 9900원짜리 신상품 위장화도 이번 행사 품목에 포함됐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제1공장 상량식

“2027년 상업생산… K-바이오 선도”

항체 의약품 생산… 내년 완공 목표
美 연계 ‘듀얼 사이트’ 전략 속도
박제임스 대표 “인류 건강증진 기여”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메카’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량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에 돌입했다.

10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건설하고 있는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 상량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량식(上梁式)은 건축물의탄생을알리고 무사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다. 전통 건축물을 지을 때 지붕의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를 올리는 것에서 유래해 상량 일시와 기원을 담은 글인 상량문(上樑文)을 함께 적어 올린다.

이번 상량식은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건설 경과 보고, 축사, 상량 순으로 진행됐다. 상량문에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롯데그룹 미션을 담았다. 롯데그룹은 현재 ‘바이오앤웰니스’를 미래 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계열사 롯데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해 총 36만 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착공하고 1년 6



지난 9일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상량식’에서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왼쪽부터)과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김진 롯데건설 CM사업본부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개월 만에 골조 공사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향후 각 12만 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3개의 시설이 세워진다.

제1공장의 경우 항체 의약품 생산 기지로 오는 2026년 완공, 2027년 상반기 내 상업 생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공정 유연성도 확보해 글로벌 잠재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도 폭넓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와 국내 송도 바이오캠퍼스 모두를 활용한 ‘듀얼 사이트 운영’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가 ‘항체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까지 원 스톱 CDMO 허브’ 역할을 하고 송도 바이오캠퍼

스는 ‘대량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올해부터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는 ADC 관련 설비 증설을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주 활동도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다. 첫 수주로는 지난 4월 아시아 소재 바이오 기업과 ADC 임상시험용 후보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수주 실적을 쌓았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상량식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여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CDMO 시장을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주류업계 “한잔으로 마음을 나누세요”

증류식 소주 등 명절선물세트 선봬

추석을 앞두고 국내의 주류업계가 명절 선물 수요를 겨냥해 다양한 주류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부터 위스키, 전통주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마련하고 한정판 패키지와 프로모션을 내세워 명절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을 선보였다. 기존 ‘일품진로’와 ‘일품진로 오크43’에 더해 올해는 처음으로 ‘일품진로 오크25’를 추가해 선택 폭을 넓혔다. 회사 측은 100년 증류주 노하우를 담은 오크 숙성 소주 라인업을 앞세워 프리미엄 소주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상면주가는 자사 온라인몰 홈술닷컴을 통해 인기 전통주 선물세트 할인전을 진행한다. 복분자주, 홍시과실주, 느린마를 소주·약주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28% 할인 판매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보온보냉백, 쿠폰 등 사은품도 증정한다. 실속형 1만 원대부터 고급형 4만 원대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마련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글로벌 위스키 업체들도 선물세트 경쟁에 가세했다.



일품진로 선물세트

/하이트진로

산토리 글로벌 스피리츠는 산토리 위스키와 전용 하이볼잔으로 구성된 ‘산토리 하이볼잔’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캄파리코리아도 와일드 터키, 러셀 리저브, 더 글렌그란트 등 프리미엄 위스키 라인업을 전용 글라스와 함께 구성한 추석 한정 세트를 내놨다.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윈저(WINDSOR)는 ‘추석 스페셜 에디션’ 3종(12년·17년·21년)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 기간 가족·친지 모임이 늘어나면서 주류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다”며 “브랜드 개성과 차별화된 패키지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기념일·명절 소비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콜마, ‘아마존 뷰티 인 서울’ 공식 후원

윤상현 부회장, K-뷰티 주제 강연

한국콜마는 오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아마존 뷰티 인 서울 2025’에 단독 제조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아마존 행사는 화장품 제조사, 브랜드, 유통사, 인플루언서, 투자사 등 국내외 뷰티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콜마는 공식 후원사로서 K뷰티 고객들과 동반성장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고객사는 물론 예비 고객사를 위한 신규 사업 및 해외 진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부 진

단 기술을 선보여 글로벌 시장 공략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행사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비전’에서 화장품 제조기업 관점에서 본 K뷰티 성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한국콜마는 지난해부터 아마존과 협력해 왔고 향후에도 K뷰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과 기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애경산업 ‘럽센트’ 스크럽 바디 워시 4종

애경산업은 퍼퓸 바디케어 브랜드 ‘럽센트’에서 ‘스크럽 바디 워시’ 4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럽센트 스크럽 바디워시는 프랑스산 고급 향료를 활용해 글로벌 향료사와 공동 개발한 럽센트만의 시그니처 생화향을 담았다.

코코넛 껍질 가루 등 자연 유래 저지극 스크럽제를 함유해 피부 각질 관리가 가능하고 보습에 도움을 주는 칸즈랜드넛오일, 호호바씨오일, 라벤더오일 성분을 혼합한 3-오일 콤플렉스를 복합 처방했다.

럽센트 스크럽 바디워시는 피부 자극 테스트와 24시간 향 지속에 대한 인체적 용시험을 완료해 부드러운 피부를 완성해 주고 샤워 후에도 은은한 잔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 더 핸드 크림 미스트 UV

아모레퍼시픽은 강력 복합성분 화장품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구현한 더 핸드 크림 미스트 UV(SPF 15+ 사진)’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새로운 유형의 손 관리 제품이다. 핸드 크림처럼 제형을 덜어 바르고 흡수시킬 필요 없이 간편하게 분사해 사용하는 형태를 갖췄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지만 스크립의 끈적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향은 굴, 베르가못 등이 느껴지는 시트러스 계열에 파올리와 라벤더가 어우러진 허브 계열이 더해졌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유럽시장 피부질환 포트폴리오 확장

‘유럽피부과학회’ 참가 예정
옴리클로 임상 데이터 등 발표

셀트리온이 기존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등에서 피부질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오는 17일~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5 유럽피부과학회’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회를 통해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맵)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학회 2일 차인 18일에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서의 바이오시밀

러 활용과 이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유럽 현지의 각 분야별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이 연자로 참석해 ‘옴리클로’ 글로벌 임상 3상의 치료 후 추적 관찰까지 총 40주 임상 데이터 등을 발표한다.

옴리클로는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천식 등에 쓰이는 치료제다.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첫 번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획득해 ‘퍼스트 무버’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CT-P55(성분명: 세쿠키누맵)’ 글로벌 임상 1상 결과도 포스터로

최초 공개된다. ‘CT-P55’는 코네틱스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은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 CT-P55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약동학, 안전성 및 면역원성 등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2025 유럽피부과학회에서 올해 유럽 출시가 예정된 퍼스트 무버 ‘옴리클로’의 연구 데이터를 비롯해 여러 피부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제품 경쟁력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유럽시장에서 치료제 영역을 확장해 시장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SK바이오팜, 모건스탠리 ESG 평가 ‘AAA’

국내 유일 글로벌 AAA그룹 포함

SK바이오팜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A를 유지하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AAA 그룹에 포함됐다.

SK바이오팜은 인적자본 관리, 윤리 경영, 품질·안전관리 등 핵심 부문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Since.1976

편안함이 다르다 GRAND BED



 그랜드침대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중기중앙회,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8일까지 4주간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서울역 쪽방촌 소화기 안전 점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 청소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농식품부-KB금융

대학생과 재능나눔 활동

농림축산식품부와KB금융그룹이 '대학생 농촌 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활동은 11일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학생들은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이·미용,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벌인다. KB금융그룹은 대학생 봉사자와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쿠팡, 동마산시장 상인들에 디지털 전환 지원

쿠팡이 동마산 전통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마산시장 상인들에게 디지털 전환 교육, 상품 경쟁력 강화 컨설팅, 시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쿠팡



롯데칠성음료, 월영지 수질정화 캠페인 펼쳐

롯데칠성음료는 다음달 12일까지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한교동' 및 '사유리'와 협업해 복서울품의숲 월영지 내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수질 정화 로봇을 활용해 친환경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이시스를 상징하는 '핑크색'과 소풍의 '피크닉'을 합성한 '아이시스 핑크닉' 캠페인은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와 9.4g 초경량 페트 출시 등 '아이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친환경 철학과 지향점을 담고자 했다. /롯데칠성음료



우리은행, 소아암 아동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우리사랑기금을 활용해 소아암 아동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병원 앞 우리집'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환아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 임차료를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을 우선 선발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HD현대, '父子 명장' 배출... "기능인 성장지원 지속"

2025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조선업 최초 부자 명장 타이틀 판금제관·기계정비 직종서 선정

HD현대가 조선업 분야 최초로 부자(父子) 명장을 배출했다..

HD현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HD현대중공업 소속 고민철 기사와 HD현대삼호 소속 유동성 기원이 각각 판금제관 직종과 기계정비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명장으로 선정된 고민철 기사는 같은 HD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한 고윤열 명장의 아들로 조선업 분야 최초의 부자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



조선업계 최초 '부자(父子) 명장' HD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 고윤열 씨(퇴직사우).

/HD현대

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뛰어난 기술과 경험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장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다. 올해에는 총 11명의 명장이 선정됐고 HD현대는 이 중 2명을 배출했다.

고 기사는 지난 2012년 입사해 플랜트설비생산부를 거쳐 현재 국제핵융

합실험로(ITER) 제작 생산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3차원 측정기기인 '레이저 트래커'를 도입, 이를 제관구조물의 품질 측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아버지인 고윤열 씨는 지난 1978년

이재용 장남, 오는 15일 해군장교 입대

〈삼성전자 회장〉

美 시민권 포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씨가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오는 15일 입영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지호씨는 입영 후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제식 ▲전투기술 ▲기본소양 등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을 거쳐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지호씨의 보직과 복무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시 결정된다.

지호씨는 2000년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부친이 회장과 모친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교에 비해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 병사로 입대해 복수국적이라는 특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 장기 체류 등의 편법을 써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지호씨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일반 병사에 비해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고 책임도 무거운 대한민국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일반 대한민국 청년들도 장교보다는 일반 병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지호씨의 '미국 시민권 포기 및 장교 근무 선택'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구본상 LIG 회장,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 등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첼시 왕립보훈병원'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LIG넥스원

LIG넥스원, 英 참전용사에 감사 뜻 전해

구본상 회장, 첼시 왕립보훈병원 방문

구본상 LIG 회장이 영국 런던 '첼시 왕립보훈병원'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그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LIG넥스원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DSEIUK 2025' 참관차 영국을 찾은 구본상 회장과 신익현 LI

G넥스원 대표가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군 참전용사 윌리엄 웰시(William Welsh) 등 6명을 만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기념품을 전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

이번 방문은 LIG넥스원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참전용사 지원 활동의 일환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판매, 국제표준 'ISO 45001' 획득

글로벌 수준 안전보건경영환경 구축

삼성전자판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산업재해와 질병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삼성전자판매는 전담 조직 운영과 지속적인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환경을 구축해 왔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예방하며 지속 가능 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삼성전자판매는 ▲정기 안전 점검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 ▲연 2회 비상 대피 훈련 등 고객과 임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대치에서 열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 수여식에서 (왼쪽부터)삼성전자판매 전병준 대표이사,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직원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체지방 제로 캠페인 ▲계절별 건강 정보 제공 ▲안마의자 및 발마사지기 지원 ▲임직원 자립형 회전 대차 지원 등을 실시하며 건강증진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홀딩스, 청년 AI·로봇 전문가 육성

‘산업용 AI·로봇 경진대회’ 열어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9일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용 AI·로봇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조 현장

안전을 위한 AI·로봇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작된 경진대회에는 전국 32개 대학 84개 팀이 참가했으며 7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참가팀에는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기회가 제공됐다. /원관희 기자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 정책과장 이은정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지맹

부음

▲신종섭씨 별세, 신재언(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팀 책임)씨·채희씨 부친상, 소영미씨 시부상=9일, 이대목동병

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장지 서울시립송화원. 02-2650-5121

▲홍기환(전 역촌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최석원(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씨 장인상, 홍유석(전 주식회사 볼빅 생산본부장)·의석(강남제비스코 기술연구소 이사)·경희씨 부친상, 한지영·정은주(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씨 시부상=9일, 서울 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2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화장 후 용인공원. 02-2258-5940

左 정은이 右 푸틴보다 높은 이유



전 형 일 의

세상이야기

침팬지는 몸짓 신호 외에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은 만들지 못한다. 인간처럼 구문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한 뇌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구문 처리는 뇌의 좌반구 회로가 담당한다. 그래서 인간의 90%가 오른손잡이가 됐다. 이에 따라 인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중심의 문화가 보편화됐다.

반대로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차별을 정당화하며 뿌리 깊은 편견으로 발전해 왔다. 서양 중세 시대에 왼손잡이들은 결혼 상대자로 부적합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 식사는 오른손으로 하고, 뒷일은 왼손으로 처리하는 것도 오른쪽 우위 개념이다. 서아시아에서는 왼손으로 음식을 건네줘서도 안 된다. 그만큼 왼손은 불결하고 불손하다고 생각한다.

영어로 오른쪽 'Right'는 '정의' 또는 '권리'라는 뜻도 포함된다. 서양식 교육을 도입한 우리도 오른손은 '바른 손'으로 배워왔다. 타고 난 왼손잡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

모에게 오른손 사용을 강요받고 자랐다.

이 같은 현실에서 중국만이 유일무이하게 '왼쪽 존중' 관념을 갖고 있다. 한자에서 대등한 개념은 선행하는 글자가 대부분 우선한다. 천지(天地), 일월(日月), 남녀(男女) 등에서와 같이 앞 글자 뜻이 먼저이다. 좌우(左右)도 마찬가지다.

특히 고대 중국에서는 오른쪽 우위 개념을 아예 오랑캐 문화로 여겼다. 예기(禮記)에는 공자가 "내가 오른손을 위로 하는 것은 내 누님의 상(喪)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군자는 평소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지만 병기를 쓸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병장기란 상스럽지 못한 것이므로 길사에는 좌를 내세우고, 흉사에는 우를 내세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왕조에서도 임금의 남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문관, 오른쪽은 무관을 자리하게 했다. 자리 배치를 통해 중문경무(重文輕武)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것도 이런 이유이다.

'왼쪽 우선'은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까지 이어진 병호시비(屏虎是非)다. 이는 1620년 퇴계 이황을 모신 여강서원(호계서원으로 개칭)에 제자인 서에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중 누구 위패

를 좌배향(左配享)에 둘 것이냐를 두고 시작된 분쟁이다. '屏'은 풍산 류씨의 병산서원, '虎'는 의성 김씨의 호계서원이다. 즉 서애와 학봉 중 퇴계 제자로서의 서열을 정리하는 두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안동 지역 유림도 갈라졌다.

이 논란은 2013년 퇴계 좌측에 서애, 우측에 학봉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종료됐다. 하지만 이후 예안향교 측이 호계서원이 복원된 위치와 서원에 퇴계 위패를 모시는 것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퇴계 후손들이 퇴계 선성 위패를 모시고 나왔다. 유교에서는 서원에 위패가 없으면 제사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좌측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400년 싸움이 허망하게 됐다.

중국은 역사와 전통에 강한 자부심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습에 얽매어 있다. 일례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은 정확히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로 예정돼 있었다. 중국어로 8이 돈을 번다는 뜻의 발제(發財)와 비슷해서 8을 갈한 숫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에서 지난 전승절 기념식에 시진핑 주석 왼쪽에 김정은을, 오른쪽에 푸틴을 세웠다. 북한을 극진히 예우하면서 그만큼 영향력은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前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공교육의 무게 앞에 선 인사 논란



기 지 수 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마다 빠지지 않는 교육 공약이었다. 지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 사교육업체 대표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교육시민단체 39곳은 대통령실 앞에서 지명 철화를 요구했고, 현장 교사들도 "입시 경쟁이 심화될 것",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짧은 파동만으로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국민 인

식 사이에 얼마나 큰 불신의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줬다. 누가 교육비서관에 왔든, 국민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지는 것이다.

특히 거론된 인사는 과거 공문화 과정에서 "학생부 평가가 교사 재량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수능이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교사들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교육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차기 교육비서관은 과거 경력이나 인사 논란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돌봄 강화, 지역 간 격차 해

소 같은 생활 밀착형 대책 없이는 개혁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 교사의 업무 부담 해소, 학생 선택권 보장 등 현장의 과제를 해결할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교사·학부모·학생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공정성 논쟁은 단순히 시험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들의 삶 전반의 형평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출발선의 불평등을 줄이고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진짜 공정이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하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가 제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다. 교육비서관 자리에 누가 왔든, 이 원칙을 지켜낼 때만 국민은 안심할 수 있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음 7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협력자를 구하고 일을 진행, 48년생 숙명은 바꿀 수 없는 필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는데, 60년생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고들 있다. 72년생 참으면 편하다, 84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중히,



37년생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49년생 운동과 휴식이 겸비될 때 업무능력과 효율성도 증가, 61년생 일에 치여 삶을 실종 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도록, 73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행운이 따른다, 85년생 떠난 인연에 연연해 하지 마라,



38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50년생 남은 노후를 위해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 62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74년생 책임감이 강하지 만 안달성향도 있으니 신중, 86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39년생 퇴직금이 있어 희망이 있다, 51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도전, 63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종일 운전 주의, 75년생 퇴직 후 편하게 살고 싶다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87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40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52년생 시부모님께 시큰둥 하지 말도록, 64년생 비가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쉬어가라, 76년생 살다 보니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88년생 집 안 청소를 적극적으로,



41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았다, 53년생 소리도 없는 적막강산, 65년생 부모님이 전적으로 믿어주시 힘에 난다, 77년생 누구나 가슴에 품은 뜻이 있게 마련, 89년생 먹고사는 걱정을 더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축복인가,



42년생 빔을 내서 빔을 갚는 형국, 5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당한다, 66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78년생 꽃 봄비가 내리니 세상이 환하다, 90년생 살아보니 조상님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43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온다, 55년생 목마를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67년생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 79년생 겸손함을 키우고 분별하는 생각을 줄여보면 발전이 온다, 91년생 닳보다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라,



44년생 이간질하지 않는 것 반려등을 확대하지 않는 것도 품격이다, 56년생 불평을 떠드는 것도 소용, 68년생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데 모르는 곳에서 도움을 준다, 80년생 절약한다면서 남 피해주지는 말아야, 92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



45년생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날, 57년생 일하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들는다, 69년생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 81년생 실력을 키우다 보면 길상한 복은 자연히 빔을 따라 모인다, 93년생 지하철에서 계단 조심,



46년생 마음자리를 바꾸면 개운이 된다, 58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70년생 팔자의 특정한 속상의 영향을 받는 것 즉 숙명이라 볼 수 있다, 82년생 인생이 박하다 해도 선행이 모이면 부귀의 빔이, 94년생 남의 험담을 들어도 조용히,



47년생 오후 휴식형 저녁을 먹는다, 59년생 좋은 표정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운이 다가온다, 71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된다, 83년생 시대에 맞춘다 해도 옛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는, 95년생 자신만이 아는 재물정보가 소중한 것 같지만 글세,

김상회의四季

절기와 운명

절기는 단순히 기후 현상에만 연관 짓는 것은 매우 표피적이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일 년 365일을 24단위로 나누어 이름을 붙인 것이다. 물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지구에 빔이 많이 닿으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니 농작물의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농업을 주로 하는 국가들에 있어 절기를 따져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물질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파장으로도 인간 운명의 춘하추동을 대입시키는 운명 예측까지 접목하여 발전시켰다. 그 절기와 운명의 대입이 과학이라 할 수 있음은 설득력이 높다.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중요 요소인 사주명조는 음양오행이 기반이며, 음양오행의 기본 구성요소는 지수화풍이다. 뜻 그대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인 것인데, 지수화풍이 근간이 되어 빔을 흡수하여 광합성 작용의 결과로 나무의 요소인 목(木)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지수화풍의 4대가 초목을 길러내는 근간이고 초목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 존재들의 먹이사슬 출발이 되기에 오행이 된 것이라고 통찰한다. 따라서 명리학이 절기와 밀접한 관계인 것은 사주의 감명에 있어 오행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지수화풍의 균형을 뜻하는 조후는 치우침이 없이 원만할 때를 매우 길상 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사주명조의 길흉을 가늠하는 것이 조후라 해도 무리가 없다. 조후가 어떠한지를 보아 나의 운기는 봄인지 추운 겨울인지 판명할 수 있고, 나무가 봄이 되면 겨우내 얼었던 뿌리가 물을 흡수하여 또다시 푸른 잎이 무성하다가 다시 가을이 오면 잎을 떨구고 앙상하게 겨울을 인고해 나가는 순환을 보여준다. 사주학을 기후학이라 하는 이유이니 절기에 대한 이해가 명리학의 절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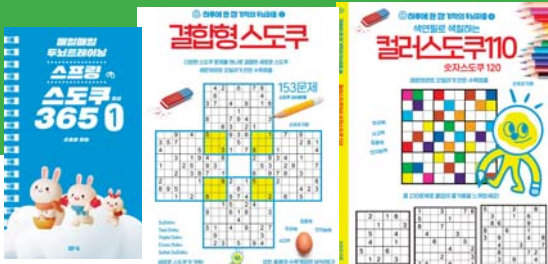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3	5	6	1	8
	5			1		2	9	
	2				6			
					7		5	6
	9						4	
5	6		4					
			8				2	
	4	9		5			7	
7	8	5	1	2				4



8		4		9	1		6	2
7						5		
	5	8				4		1
5				6				
2			8		9			5
				4				8
1		9				3	8	
		7						9
3	6		9	2		1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레디트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ㄴ	9	6	8	ㄷ	ㄴ	9	8	ㄴ
ㄴ	ㄴ	8	9	9	6	ㄴ	ㄴ	ㄴ
9	ㄴ	1	6	ㄴ	8	9	8	ㄴ
ㄴ	8	ㄴ	1	6	ㄴ	8	9	9
8	ㄴ	9	ㄴ	9	ㄴ	1	6	8
9	9	8	ㄴ	ㄴ	6	ㄴ	ㄴ	1
6	8	ㄴ	9	8	9	ㄴ	ㄴ	ㄴ
ㄴ	6	ㄴ	ㄴ	1	8	9	9	9
8	ㄴ	9	9	8	ㄴ	ㄴ	ㄴ	6

ㄴ	ㄴ	1	8	ㄴ	6	9	9	8
6	9	ㄴ	8	1	9	ㄴ	8	ㄴ
9	8	ㄴ	ㄴ	9	ㄴ	6	ㄴ	ㄴ
8	1	6	9	ㄴ	8	ㄴ	ㄴ	9
9	ㄴ	9	6	ㄴ	8	ㄴ	1	ㄴ
ㄴ	8	8	ㄴ	9	ㄴ	1	6	9
1	ㄴ	9	8	ㄴ	8	9	6	
8	6	ㄴ	ㄴ	1	9	ㄴ	ㄴ	ㄴ
ㄴ	9	ㄴ	1	6	9	ㄴ	8	8



오세훈 서울시장의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더 건강한 서울 9988'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체력측정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건강 수명 3년 늘린다

‘더 건강한 서울 9988’ 발표

서울시가 시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종합계획 ‘더 건강한서울 9988’을 1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생활습관과 고령화로 높아나는 의료비 지출에 대응해 운동·식습관·노인 건강 관리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의 기대 수명은 83.2세(2022년 기준)이지만 건강수명은 70.8세로 12년 이상 차이가 난다. 잡곡류·채소류·통곡물 섭취율은 2020년 대비 4%p 줄고, 일일 당 섭취량은 늘었다. 이로 인해 연간 진료비는 20조 원을 넘었고, 60세 이상 진료비가 절반 이상(54%)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3년 늘리고(70.8세→74세), 운동 실천율을 3%p 끌어올려 ‘평생 건강 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먼저 ‘체력인증센터’를 올해 하반기 자치구마다 1곳씩 설치해 2030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 시민은 체력 측정 후 전문가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고, 건강관리 앱 ‘마이 트레이너 서울’과 연계해 운동 실천을 이어갈 수 있다. 체력등급 향상 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아울러 가상현실 스포츠실 100곳, 학교 체육시설 100곳을 개방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통쾌한 한 끼’ 사업도 추진한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을 올해 1000곳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1만5000곳으로 늘리고, 배달앱과도 연계한다. 편의점과 학교 매점에는 어린이 눈높이 건강식품 전용 코너 ‘우리아이 건강키움존’을 도입해 내년 300곳 시범 운영 후 2030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한다.

/이현진 기자

학생 우울해소 등 정서안정 위해 상담교사 배치, 심리센터 만든다

서울시교육청, 마음건강 증진 계획
코로나19 이후 학생 마음건강 악화
예방-발견-개입-회복 통합지원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학생들의 정서 지표와 자살·자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상담교사 확충, 사회정서교육 확대, 24시간 통합콜센터 운영 등 종합 대책을 내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감소로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자살·자살시도·자해 학생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제20차(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 인지율(34.2%→42.3%), 우울감 경험률(25.2%→27.7%), 외로움 경험률(14.1%→18.8%), 불안장애 경험률(11.2%→14.1%) 등 모든 지표가 상승했다. 스마트폰·SNS과다사용이 우울·불안을 키우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 비율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개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업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편예방-선별지원-개별집중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층지원체계(MTSS)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예방-발견-개입-회복의 통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네 가지 핵심 과제는 ▲모든 학교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년 사회정서교육 운영 ▲서울학생통합콜센터 및 응급지원단 운영 ▲심리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 구축이다.

우선 초등학교까지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늘린다. 사회정서교육은 2026학년도부

터 전 학년 15차시 이상 확대되며, 교원 연수와 원격연수 과정도 마련된다. 학생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위기 신호가 접수되면 48시간 내 첫 개입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 시 응급구조단을 1시간 내 현장에 투입하거나 교육지원청 위기지원단과 연계한다.

또한 2026년 9월 완공 예정인 심리정서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를 통해 고위기 학생에게 상담·학습·의료 연계를 아우르는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학교 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은 법·제도적 한계가 있어 교육공동체, 시민사회, 지자체, 정치권, 중앙정부의 공동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생 자살 보고서를 받을 때 가장 마음이 무겁다”라며 “5년 안에 학생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 교실에서 시작한 작은 신호가 48시간 안에 ‘도움’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26일 ‘DMZ OPEN 국제음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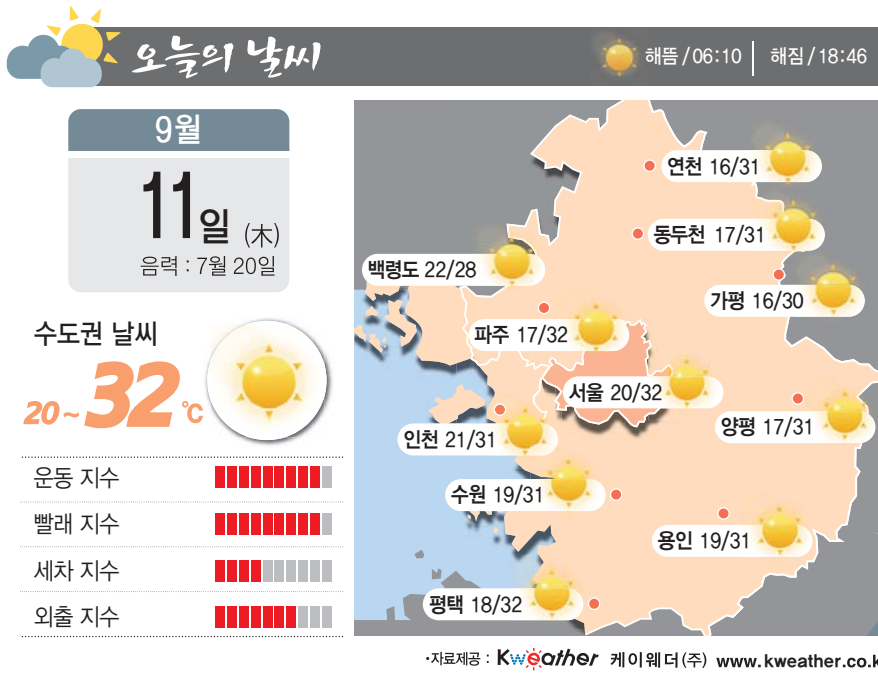
고양아람누리서 5일간 개최

경기도DMZ(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의 하나로 ‘DMZ OPEN 국제음악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다. 올해는 ‘내일을 위한 교향곡 Symphony for Tomorrow’의 슬로건 아래 경기필하모닉, KBS교향악단, 한경arte필하모닉, 벨기에국립오케스트라가 차례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본 공연에 앞서 특별 사전 공연이 19일부터 21일까지 파주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야외공연장 등 DMZ 일대에서 펼쳐진다.

먼저 9월 26일에는 김선욱 지휘의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개막 무대에 오른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함께, 작곡가 한재연의 위촉작품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무무’가 세계 초연된다.

/경기=김동택 기자 mk4303@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 기분 나빠...물랐다” /사진 뉴시스
▲폴란드, “영공 침범” 러 드론 격추...“나토와 지속적으로 연락”

▲中 유학생·학자 10여명, “美 입국 과정서 심문·괴롭힘·송환”
▲EU “규칙 기반 세계 질서 끝났다...이민·무역·인도적 지원 등 모든 것 무기화”

▲美 보건부, ‘미국 다시 건강하게’ 2차 보고서...백신부작용 연구 강화
▲캘리포니아 ‘가넷’ 산불 대확산...2000년 넘은 고대 레드우드 숲 위기

내년도 서울시 공립교사 298명 선발

시교육청, 올해보다 47명 줄어들어
유치원 48명, 초등학교 212명 등

내년 서울시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선발 규모가 298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47명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2026학년도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sen.go.kr)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는 유치원 48명, 초등

학교 212명, 특수학교(유치원) 8명, 특수학교(초등) 30명 등 총 298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 8월 사전예고와 동일하며, 유치원 교사는 작년보다 33명 늘었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53명 줄었다.

국립학교의 경우 서울맹학교 요청에 따라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을 선발하며, 제1·2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해 최종 합격자를 학교에 통보한다.

사립학교 교사는 10개 학교별인의 위탁을 받아 초등학교 7명, 특수학교(유치원) 1명, 특수학교(초등) 12명 등 총 20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2개 법인은 공사

립 동시지원제를, 8개 법인은 사립 복수지원제를 택했으며,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치러지고 제2·3차 시험은 각 학교별인인 별도로 시행한다.

응시원서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에서 접수한다. 원서접수 불편사항이나 시험 문의는 서울교육콜센터(02-139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일정은 제1차 시험이 11월 8일, 제2차 시험이 내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제1차 합격자는 12월 10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에 발표된다.

/이현진 기자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 해외진출 지원

킨텍스-GH, 24일 시티테크 엑스포

킨텍스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 주최하는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World CITYTech Expo 2025, 이하 시티테크 엑스포)’를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시티테크 엑스포는 국내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4~25일 진행되는 해외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에는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 유럽 투자사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정

부기관 등 약 50여 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피칭 대회’도 열린다. 국내 스마트시티·도시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이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한다. 전시부스는 조립식 부스를 포함해 주최 측이 지원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저속노화 바람
MZ세대
셀프케어 확산
L1



Life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상량식
글로벌 시장 공략
L2



신소재로 피부재생에 탄력까지 핑크빛 광채로 K-뷰티 물들이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메디큐브 'PDRN'

에이피알 뷰티브랜드, 고기능성 제품 개발
신소재 항노화 성분 'PDRN' 적극 활용해
겔마스크, 앰플, 세럼 등 다양한 제품 선보

에이피알의 핵심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는 최근 글로벌 K뷰티 시장에서 신소재 성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를 적극 활용해 전략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메디큐브는 지난해 6월부터 PDRN 제품군을 선보이며 제로·레드·콜라겐·시카·딥 등 기존 스킨케어 제품군을 확장했다.

PDRN 제품군은 항노화와 피부 탄력을 개선해 주는 효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2050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고를 이뤄냈다. PDRN 제품군은 출시 약 1년 만에 단품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 1500만 개를 돌파했다.

메디큐브는 PDRN 대표 제품으로 'PDRN 핑크 콜라겐 겔 마스크'와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을 비롯해 토너, 세럼, 수분크림, 아이크림, 선크림, 미스트, 립밤 등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특히 'PDRN 핑크 콜라겐 겔 마스크'는 PDRN과 콜라겐을 그대로 응고시킨 겔 제형으로 설계된 마스크다. 끈적임 없이 피부에 밀착돼 흐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약 4시간가량 부착 후 떼어내면 마스크가 투명해지며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PDRN 핑크 콜라겐 겔 마스크'는 지난해 6월 국내 출시 후 같은 해 8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해외 유명 인사 해일리 비버가 해당 제품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하면서 제품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했다.

그 결과, 'PDRN 핑크 콜라겐 겔 마스크' 판매량은 2024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311% 증가하며 4배 수준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높은 수요가 유지되며 2025년 2분기까지 분기 평균 약 120% 수준의 판매 성장률이 나타났다.

지난 9일 기준으로는 미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에서 'PDRN 핑크 콜라겐 겔 마스크'는 마스크 제품 부문(페이셜 마스크 카테고리)에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뷰티 전체 부문(뷰티앤퍼스널 케어 카테고리)에서는 59위를 차지했다. 글로벌에서 제품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앞서 'PDRN 핑크 콜라겐 겔 마스크' 사용 후기를 남긴 해일리 비버는 겔 마스크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틱톡에 '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스시를 먹기 챌린지' 영상을 올려 K뷰티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소비자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은 PDRN 성분이 함유된 고농축 핑크빛 제형의 앰플이다. 제품 외관과 내용물 모두에서 핑크색 컬러로 제품 특징을 강조했다. 올해 8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400만 개에 달한다.

'PDRN 핑크 콜라겐 젤리 미스트 세럼'은 다기능성 제품이다. 분사하는 방식에 따라 미스트와 세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탄력과 광채를 관리할 수 있다.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도 메디큐브만의 K뷰티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이다. 투명한 젤 크림 속에 고순도 PDRN 캡슐을 구현한 것이다.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력이 적용돼 풍부한 수분감을 제공한다.

'PDRN 핑크 콜라겐 토닝 겔 토너 패드'는 고순도 PDRN을 담은 0.5mm 얇은 두께의 겔 패드다. 피부에 진정과 수분을 동시에 전달한다. 세안 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PDRN 제품군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또다른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스킨부스터'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美아마존 뷰티부문 '성과'... 영향력 커져
수분공급에 피부 탄력·광채 관리 한번에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스킨부스터' 주목
헬스케어 영역까지 사업확장 기반 마련도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최신 흐름을 반영해 PDRN을 핵심 성분으로 한 스킨부스터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스킨부스터 영역에서 단기적인 뷰티 유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고기능성 제품을 자체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와 브랜드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이피알은 경기도 평택에 '에이피알팩토리 제3캠퍼스'도 설립하고 있다. 향후 해당 공장은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PN(폴리뉴클레오티드) 등 항노화 원료를 생산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거점이 된다.

또 에이피알은 화장품뿐 아니라 헬스케어 영역까지 내다보며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DRN과 PN을 뷰티 디바이스와 접목하고, 관련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해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에이피알 측은 "기반 시설과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스킨부스터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고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왼쪽부터)메디큐브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PDRN 핑크 콜라겐 젤리 미스트 세럼', 'PDRN 핑크 콜라겐 캡슐크림'(위), 'PDRN 핑크 콜라겐 토닝 겔 토너 패드'(아래)
▼메디큐브 'PDRN' 제품군. /에이피알



▲손흥민, '韓 리빙 레전드'...최전방·측면 가리지 않는 해결사 /사진 뉴시스
▲이정후, 2경기 연속 안타...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가을야구 희망 이어가

▲양궁 김우진-안산, 세계선수권 혼성전 은메달...8연패 좌절
▲'골프 황제' 우즈, 6개월 만에 스윙 연습 공개...복귀 가능성

▲지독한 아홉수 빠진 LG 손주영...개인 통산 첫 10승 향한 5전6기
▲KBO, 구장 관리 메뉴얼 강화...MLB 전문가와 현장 점검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